



www.maggun.com

2016. 11 vol. 68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The Lone Ranger

· 이복 군산시의원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동익** 단장 · 근대사 소리박물관 **이종간** 관장

· 군산시민예술촌 **박양기** 촌장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군산지회 **나두길** 회장

· 소정운·이세나 법률사무소 **홍성호** 사무장 · 월명장례식장 **양성용** 장례지도사

· 곱창이 최고예요 **문혜영** 사장 · 시간여행축제



9 772383 813003
ISSN 2383-8132

Now

국립군산대학교



GO TO THE
KUNSAN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강의실에서 계속되는 토론의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젊은 열정과 꿈이 가득한 캠퍼스,
오늘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행복한 대학,
여기는 국립군산대학교!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eb. www.kunsan.ac.kr add.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Just Kunsan!
Since 1947

교육혁신의 선두!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A)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산학연계 교육 선도대학!

지역중심국립대학 중
전국 유일 PRIME 사업 선정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2년 연속 우수대학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3년 연속 선정

“꿈이란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예요. 언제 하느냐의 문제예요.”

카카오 브런치북 2회 대상 수상

인생을 스스로 걸어가는 소도시 청춘들의 리얼 다큐멘터리!

무대가 없으면 어때? 목적 없는 공부를 왜 해? 대학을 안 나오면 어때?
농사가 어때서? 한 번쯤 망하면 어때? 서울에 살아야 할 이유는 뭔데?



우리, 독립청춘

우리는 소도시에서 일한다

배지영 지음

인생을 스스로 만들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소도시 청춘들의
따라하고 싶은 43가지 이야기!

북노마드

PING®



핑 골프웨어 군산수송점

GRAND OPEN

20만원이상 구매시 고급양말 증정/30만원 이상 구매시 골프볼(2pcs) or 골프우산 증정

PING 골프&스포츠 정상·이월 복합매장

신상품

30% SALE (일부품목 제외)

이월상품

50% SALE (일부품목 제외)

핑 골프웨어 군산수송점

전북 군산시 수송동 외환은행 옆
Tel.063) 463-3800



hite

하이트진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hite만 마십니다!

친맥하라 hite

광복하세요!!
정기

경고: 과음은 건강과 안전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세계 최장의 33.9km 새만금 방조제!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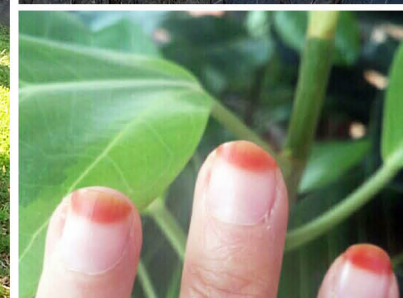
만 추 (은파호수)

가을하늘 따라서
 하얀 구름
 호수에 잠겼다.

손톱 끝 봉숭아물
 초승달로 남아
 두 사람
 첫눈을 이야기하고

찬바람
 낙엽 떨어어

호숫가 저만치
 또 하나 계절을 실어 보낸다.



최 윤
 1959년 전북 군산 출생
 군산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졸업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응용과학부 교수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한국어류학회장,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장 역임

여우가 범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났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그 동안 들어본 적 없던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이름이 뉴스의 단골 메뉴가 됐고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는 국정 농단 행각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데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설립 취지의 거짓 구실로 기업인들로부터 800억 원의 기금을 뜯어내는가 하면 정부부처 고위직 공무원은 물론 민간기업의 인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한 최순실에게 국정시스템은 무너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녀의 지시를 받는 허수아비였음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허탈과 경악을 넘어 참담함에 빠졌다. 하지만 이는 국정농단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최순실이 무속인이었던 최태민의 딸이라거나 한때 현 정부 막후 실세로 알려졌던 정윤희의 이전 부인이라는 것 말고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그녀가 놀랍게도 그간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국정전반을 관여하는 위세를 떨치고 대통령의 연설문과 공식 일정까지도 최종 점검한 것이 폭로되면서 사실상의 대통령으로 존재했다는 사상 초유의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두고 국민들은 이것도 과연 나라인가 하는 충격과 자괴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는 사회 전반에서 박근혜의 하야와 탄핵을 외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남북관계와 경제 파탄, 최악으로 치닫는 노인 빈곤율과 청년 실업률, 갈수록 허리가 휘는 서민들의 한숨과 고통, 뒷북만 치는 국가 재난 대비 시스템, 국익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국론 분열 사드 배치, 비관적인 향후 경제 전망 등 무지,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들은 이토록 살기 힘든 마당에 기업을 등쳐 수백, 수천억 원의 돈을 비밀리에 동원, 그 돈으로 국내외에 수십 개의 엉터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호텔을 비롯하여 여러 채의 저택을 매입, 돈을 물 쓰듯 호의호식하던 최순실은 수사가 시작되자 일단 종적을 감췄다가 무슨 공공이에 선지 급거 귀국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설을 일부 시인했다고는 하지만 날만 새면 또 다른 의혹이 드러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뭐가 뭔지 종잡을 수가 없다. 외신도 연일 이를 타전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유례없는 창피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의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연결고리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인지 우려도 많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또 현 정부 단골 수법인 여론 공작적 억지 이슈를 급조, 몰타기를 시도한다거나 능장

수사로 연루자들 간에 책임 떠넘기고 말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게 뻔해 보이는데 그 시간을 벌어준다거나 짜맞추기식 수사로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레임덕에 접어든 현 정부에 더 큰 타격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검찰로서는 그동안 실추됐던 명예를 복원할 기회로 삼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성역 없는 수사로 전모를 철저히 파헤쳐 비록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범법행위자에게는 응분의 처벌을, 억울한 자가 있다면 회복의 기회를 줌으로써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야 한다. 적어도 세계를 향하여 민주국가라는 타이틀이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준엄한 시험대에 서 있다.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관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jin0101@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이달부터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_ 282pyk@hanmail.net Fax_ 063) 911-1856

협찬업체

베니키아 아리울 호텔 063-464-2005~7_ 숙박권
다이도 063-452-3800_ 식사권
오죽 063-464-5625 _ 식사권
하이트진로 063-453-5111_ 맥주
미즈커피 063-446-2867_ 음료권
바나나팩토리 070-4274-8839_음료권
커피점빵 063-468-1776_음료권

* 군산 하이트 진로에서 제공하는 맥주를 받고 싶은 구독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미성년자 불가)하시고, 매거진군산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직접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고경임	김소람	정고운	이재민	차영근
전기정	이정화	김옥희	조성혜	양소영
이은영	오하영	백중현	문호근	이태현

근대군산 1930
시간여행
Modern History
Time Travel
to Gunsan



나비잠 게스트하우스
010-8436-8810
군산시 구영3길 34-2



햇살이 가득한 집
010-6678-6759
군산시 거석길 39



꿀잠 게스트하우스
010-4489-2663
군산시 구영3길 67



레마 게스트하우스
010-4463-1563
군산시 중앙로 205



사이사이 게스트하우스
010-5401-1959
군산시 구영6길 64



게스트하우스 이웃
010-4048-8811
군산시 구영1길 11-2



군산이 당신의 기억을 힐링해 줄거야

이번에 군산에 가면

빵도 먹고,

찜빵도 먹고,

간장게장도 먹고,

콩나물국밥도 먹고,

호원사진관하고 은파호수공원하고

철길마을에 가서 사진도 찍고,

새만금을 미친듯이 달려보고,

일본식가옥에서 조상의 아픔도 느끼고,

근대역사박물관도 구경할거야.

그리고,

잠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잘거야.

즐거운 여행의 시작은

좋은 숙박에서 시작됩니다.

군산에 오시면

편발리지로 연락 주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전국 최초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군산편발리지협동조합

www.funvillage.kr 063-446-8830

배포처

군산매거진은 매달 초 1~3일에 발간되며 아래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발간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 원도심_신포우리만두 063-445-0389
골드북권방 063-445-1212
던킨도너츠 063-443-7887
미다원 063-462-2132
우리문고 063-445-0031
- 나운동_비달헤어 063-461-7015
한길문고 063-463-3109
- 은파_파라디소페르두또 063-471-8525
유원지_산타로사 063-462-9062
뮤직포유(RED HAT) 063-466-8202
- 기 타_군산역
군산CC 063-472-3355
커피집빵 063-468-1776
다이도 063-452-380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063-443-8283
고우당커피숍 063-443-1042
아리울 웨딩 063-453-3200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매월 초 발행되며 위 목록의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타지역 및 맥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홈페이지 www.maggun.com 의 정기구독 코너에 성함, 연락처, 주소와 입금자 성명을 남겨주시거나, 매거진군산 (063)445-1856으로 연락 주시면 1년간 매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배송료는 25,000원입니다.

입금처_ 신한은행 110-327-977900
예금주_ 아이씨엠 이진우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jin0101@hanmail.net



Vol. 68 | 2016.11

magazine gun	발행인·편집장	이진우	jay0810@hanmail.net
	디 자 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gun		진현태	gkfp3456@naver.com
		김동섭	nan901125@naver.com
	주 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시 민 기 자	조종안	chongani@hanmail.net
	상 임 고 문	이희찬	lhc-good@hanmail.net
	문 화 디 력 터	이화숙	lila3006@hanmail.net
	시 민 기 자	배지영	okbjy@hanmail.net
	시 민 기 자	이생곤	grandlee@kmni.co.kr
	시 민 기 자	심권택	sys2091@daum.net
	자 유 기 고	이춘우	kinkyfly@naver.com
	컬 럼 니 스 트	온승조	gsforum@hanmail.net
	컬 럼 니 스 트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제작_ ICM www.creativemind.kr /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23-11
출판신고번호 467-2011-000002
인쇄_ 진포인쇄 (063)471-1318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번호_ 군산 라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1945 Thanks Rice & Nature / Health Bakery 1945

Thanks to rice and nature. Since 1945 bakery that considers your health.
The beginning of a healthy day is baked here!
The place where it gives a stir in one's heart By Lee Sung Dang Bakery.

LEE SUNG DANG
Thanks Rice & Nature / Health Bakery 1945

해방과 함께 시작된 ‘이성당’의 내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을 만드는 건강한 빵

이성당은 자연과 쌀에 감사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스런 마음으로 항상 노력합니다.

이성당의 대표적인 빵은 앙금빵과 야채빵이 있으며,

2006년 부터는 쌀과 빵을 연결하는 일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블루빵'으로서 일본의 니가타현에 있는

'겐리치' 제과점에서 전수 받았습니다.

현재에는 효모종을 이용한 다양한 쌀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LEE SUNG DANG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주문및 상담 . 전화 063-445-2772, 080-445-2772(무료)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12-2

소신 있는 발언하는
정치인

시의원
이복

그를
주목한다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최근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해 과감 없는 자기주장을 소신 있게 발언하는 정치인이 있다. 군산시의회 이복 시의원.

그의 현 당적은 '국민의당'이다. 일부 현안에 있어서는 소속정당과 다른 의견을 과감 없이 표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복 시의원을 주목한다. 최근 지역현안으로 떠올랐던 '새만금 석탄재 매립'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시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반대여사를 분명히 했다.

당초 군산시의회 차원의 공식 건의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군산시의회 건의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석탄재 매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 새만금 카지노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원은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카지노 유치문제는 같은 당 지역위원장이기도 한 김관영 국회의원이 당선 이후, 낙후된 군산발전을 위해 새만금 조기개발을 주장하며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안임에도 지역위원장과 뜻을 달리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군산시 금고 전복은행 탈락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심의 촉구 입장을 밝히는 한편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이끌어 내며 군산시금고 재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런 소신 있는 의정활동들이 일부에서는 반대만 하는 의원, 무슨 배짱으로 지역위원장과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비난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정치적 판단에는 그의 과거 활동들에서 정치적 성향과 철학을 찾을 수 있다.

시민운동과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견제와 비판적인 시각을 키워 왔고, 정치 역시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지역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이 아닌 소수정당이었던 '국민참여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 정치활동을 시작했으며 재선에 성공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어느 정파에 소속됨 없이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주저 없이 말하는 이복 시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이유는?

지역 현안들에 대해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다. 우리 속담에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다. 양비론이다. 시의원은 작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지만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해당사자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아 좋을지 모르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다.

-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 새만금 카지노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는지?

카지노는 도박장이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신적 폐해가 심각한 도박장을 유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국인 출입에 대한 안전장치? 장사가 안 되면 규제는 풀어질 수밖에 없고 거대자본의 힘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부쳐도 카지노는 도박장에 불과하다.

나는 오래전부터 카지노 뿐 아니라 화상 경마장, 경륜장 등 도박에 불과한 사행성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2013년 일부 지방언론에서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카지노 유치를 거론할 때부터 카지노로 인한 지역 및 정신적 피해와 문제 등 심각성에 대해 알렸다. 다른 건 몰라도 카지노만큼은 유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 유치를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 문제가 지역 국회의원 앞장서면서 고민이 많았다. 같은 당 지역위원장이 군산발전을 위해 ‘카지노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쓰고라도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유치한다고 나서다보니 일개 시의원의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공론화 절차도 없었다.

한 정당에 몸담은 자로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뜻과 다른 주장을 펼치기 쉽지 않다. 지역위원장이 주장하니까 시의원들은 반대 없이 따라가는 형국이었다. 공식적인 반대 입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우회적으로 카지노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시금고 전복은행 탈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군산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산규모 340조의 거대 공룡이나 다름없는 '국민은행'과 14조에 불과한 '전복은행'의 싸움은 승부가 되지 않았다.

시금고 평가의 잣대는 행안부 지침인데 이 지침을 따르면 열악한 지방은행보다는 일반 시중은행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또 2금고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국민은행이 과연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세금 한 톨 제대로 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군산시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 이용하기 운동 등을 실천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향토기업인 전복은행을 군산시가 공정한 심의라는 명분으로 탈락시킨 것이다. 군산시의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소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대만 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반대만 하는 시의원이 아니다. 행정에서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칭찬도 한다.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다보니 그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귀 기울이는 정치인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의 다음 행보는 어떤 방향일지 궁금해지는 가을이다. 이렇게 나라가 복잡하네 부디 군산만이라도 부정 없는 청정한 지역으로 남아주기를 바래 마지 않는다.





“대학이 발전하려면 예전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항구도시 특색 살린 2016 선상포럼 개최

글 | 조종안(시인기자)
chongani@hanmail.net

희망의 21세기가 열리면서 군산의 첫 번째 아이콘으로 떠오른 새만금. 그 새만금 시대 전복의 미래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대학이 있다. 군산시 대학로 558에 자리한 국립 군산대학교(아래 군산대)이다. 군산대는 국내 기업들이 평가하는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2015년 금속 분야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식품·미디어 분야에서는 명문 대학들을 제치고 강자로 우뚝 서는 등 취업인센티브까지 획득하였다.

군산대는 올해에만 ‘발명 인터뷰 및 공공 IP 활용 지원 사업’, ‘제품 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사업’, ‘2016년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 사업’ 등 총 5건의 지식재산권 기반 R&D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모두 특허청이 주관하고 한국 지식재산전략원이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 9월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학기술 발전 및 우수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식재산 우수대학으로서 위상을 다지고 있다.

어청도 근해 해상에서 선상포럼 개최

군산대 산학협력단·LINC 사업단(단장 김동익)은 지난 13~14일(1박 2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근해 해상에서 '2016



산학협력 선상포럼’을 개최했다. 해림호(군산대학교 해양실습선) 강의실과 갑판, 어청도 등에서 진행된 선상포럼은 항구도시 특색을 최대한 살린 행사로 군산·익산 지역 기업체 최고경영자, 임원, 교수, 학생 등 62명이 참석, 우호를 다졌다.

군산대 선상포럼은 올해 9회째. 선상포럼을 기획 주관한 김동익 단장은 “군산대는 산학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상포럼을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며 “이번 포럼 참가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더욱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해나갈 계

획”이라고 밝혔다.

첫날은 나의군 군산대 총장 인사말에 이어 선박 안전교육, 해림호 투어, 최종찬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장과 신귀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실장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 후에는 산학협력 효율화 증진방안 논의, 분야별 교류회 및 레크레이션(선상낚시) 등으로 이어졌다. 둘째 날은 아침 일찍 어청도 등대를 견학했다. 이어 선상간담회와 상호교류의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 군산 외항에 입항하는 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아래는 선상포럼 취재기다.



평생을 안해 본 월급쟁이 생활,
그래도 **직생민족**이 있습니다

소도시 예술가들 ② 군산

군산 '시민예술촌' 총장 문화기획가 박양기

글 | 배지영(시민기자) 사진 | 진정석
okbjy@hanmail.net jin0101@hanmail.net

“옛날에는 공부를 조금만 잘 하면 서울로 유학 보내잖아요. 제가 전북 정읍 태인 사람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큰형이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박양기씨는 그의 아버지 나이 마흔일곱 살에 태어난 늦둥이였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장구를 가장 잘 치던 어른. 아버지의 흥과 리듬은 작은형 박상현씨가 물려받았다. 1970년대에 잘 나가던 그룹 '서울 패밀리'의 오리지널 드럼 멤버가 양기씨의 작은형이었다. 시골에서 장구 가락을 듣고 자란 양기씨가 서울 가서 듣게 된 건 드럼 소리였다.

10대 소년 시절, 그는 '들국화'나 '송골매'의 음악을 접했다. 외국의 락밴드 음악도 즐겨 들었다. 작은형이 하는 밴드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그가 가장 가깝게 여긴 악기는 말 하지 않아도 타악기, 어느새 드럼을 연주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그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저는 대학을 안 가고, 음악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스무 살 때였어요. 악기점 사장님이 '서대문에 기타 잘 치는 친구'라고 태원(그룹 '부활'의 리더)이를 소개시켜 줬고요. 그때는 밴드 이름도 없었어요. 음악이 좋아서 했죠. 밤업소에서 연주할 때,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음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락밴드니까 '우리 연주'를 한 거예요. 하루 만에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1980년대 초반에는 대규모 라이브(공연 문화)가 드물었다. 전두환 정권은 사람들이 데모할까 봐 모이는 것 자체를 못 하게 막았다. 락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티 나지 않게 이태원으로 몰려들었다. 거기서 외국 밴드들이 공연하는 비디오테이프를 봤다. 푹 터진 야외에서 관중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볼 때, 양기씨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될 거라는 희망, 양기씨는 가슴에 품었다. 우선, 비싼 돈을 주고 서라도 버터를 샀다. 계속 먹으면, 외국 가수들처럼 발음이 좋아질 것 같아서 진지하게 실행에 옮겼다. 치즈까지 먹으면 영어 발음을 더 잘 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비싸서 포기했다.



포럼 첫날, 해림호 선상에서

13일 오후 1시. 군산 외항 역무선 부두를 떠난 해림호(1057톤)가 서서히 물살을 가른다. 높은 하늘과 쪽빛 바다가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맑고 푸른 바다를 무대삼아 낭만 가득한 향연이 시작된다. 어부들이 고기잡이 그물을 내린 지역임을 알리는 색색의 깃발과 항로를 표시하는 각종 부이(buoy)들이 춤추듯 너울댄다. 기관실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육중한 엔진 소리와 ‘부~웅’ 울리는 뱃고동 소리가 절묘한 하모니를 이룬다.

해림호 목적지는 중국 산둥반도의 닭 우는 소리도 들린다는 어청도(於靑島). 고군산군도에서 가장 서북쪽에 위치하며, 군산에서 39해리(약 72km) 떨어진 외딴 섬이다. 운항속도는 시속 10~12노트. 육지의 자동차로 환산하면 시속 20km 안팎이다. 그야말로 거북이 운행이다. 그래도 느리게 느껴지지 않는다. 출항 한 시간쯤 지났을까, 세계에서 가장 긴, 그래서 ‘바다의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새만금방조제(33.9km)와 고군산군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여름의 뜨거운 조각들이 파편처럼 흩어진 은빛 바다가 펼쳐진다. 만선의 꿈을 안고 떠가는 소형 어선들과 끝없이 이어지는 수평선, 그리고 얹어놓은 조개껍데기처럼 앙증맞은 조막만한 섬들이 청자빛 하늘과 어우러지면서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킨다. 가을이 무르익는 시기여서 그런지 더욱 짙고 선명하다. 선상꼭대기에서 휴식을 취하는 갈매기 가족이 눈을 즐겁게 해준다. 열두 개 섬으로 이뤄진 ‘십이동과도’를 지나자 어청도가 아슬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어~어! 청도다!”

문득 어청도 지명유래가 떠오르면서 튀어나온 소리다. <치동묘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202년경 중국 한나라 고조가 천하를 통일하고 제나라 항우가 망하자 재상 전횡(田橫)이 군사 500을 거느리고 망명길에 올랐다. 그들은 몇 달을 떠다니다가 섬 하나를 발견한다. 쾌청한 날씨에 갑자기 푸른 섬이 나타나자 전횡이 배를 멈추라 명하고, 주변 바닷물이 거울처럼 맑아 ‘어청도’라 이름 지었다고 전한다.



끝부분이 약간 다른 전설도 내려온다. 전횡과 군사들이 망망대해를 몇 달 동안 떠돌며 육지를 그리워할 즈음, 맑고 푸른 아름다운 섬을 발견한 군졸이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靑島)인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어~어! 청도다!’ 하고 외친 것에서 ‘어청도’가 유래했다는 것이다. 7~8년 전 귀동냥으로 얻어들은 전설로 허무개그처럼 씬렁하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졌다. 지명 앞에 ‘어조사 어(於)’만 붙을 뿐 중국의 ‘靑島(칭다오)’와 같아서였다.

김정숙 군산대 평생교육원장도 재미있는 전설이라며 공감했다. 김 원장은 “어청도 <치동묘 전설>을 듣다 보니 이번 선상포럼에 참석한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포럼이 더욱 협력하고,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소 모임을 하다보면 급한 사정으로 중간에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러나 이번 선상 포럼은 다릅니다. 망망대해와 출렁이는 파도, 갈매기, 각종 먹을거리, 파란 하늘, 신선한 공기와 더불어 엄마의 양수 속에서 지내는 쌍둥이처럼 껍싹없이 하나가 됐어요. (웃음) 비약이 심한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한 뱃속의 인연’, 즉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포럼 결과가 군산대 가족과 군산시 발전에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상포럼에 3번째 참석이라는 군산의 료원 김영진 원장도 거들었다. 처음엔 행사 자체가 생소하고 병원 일도 바빠 망설였으나 막상 참석하고 보니 다양



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강의와 토론 등으로 병원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김 원장은 “밤하늘을 지붕삼아 열리게 될 선상파티(레크레이션 및 선상낙시)와 어청도 탐사를 생각하면 초등학생처럼 가슴이 설렌다”며 포럼을 준비한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해림호는 어청도항에 입항하지 못했다. 1930년대에 축조된 어항으로 1000톤이 넘는 대형 선박이기 때문이란단. 실망이 컸지만, 푸짐한 저녁과 선상낙시로 아쉬움을 달랬다. 갑판에서 열린 레크레이션 시간. 일일 어부가 된 참석자들은 봉장어와 갈치, 놀래기 등이 낚시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에 환호성을 지르기도. 한쪽에서는 조항조의 <때>, 하동진의 <즐거며 살자> 등이 밤하늘로 울려 퍼졌고,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담소를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

포럼 둘째 날, 어청도 등대 견학

오전 6시에 일어났다. 잠자리가 비좁아 불편했지만, 이것도 체험이려니 생각하니 재미가 느껴진다. 세수하고 카메라를 챙겨 갑판으로 나갔다. 어청도 아침은 여느 섬처럼 고요하고 아늑하다. 어선을 이용해 항구에 도착, 어청도 답사에 나섰다. 목적지 어청도등대(등록문화재 제378호)까지는 약 2km. 전형적인 섬마을 언덕길을 따라 걷는다. S자로 굽은 길가의 들꽃들이 수줍은 얼굴로 객을 반긴다. 김정숙 원장이 노란 들꽃 한 송이를 머리에 꽂더니 “동막골 처녀가 됐다”면서 활짝 웃는다.

어청도는 동쪽의 검산봉(129m)과 서쪽의 공치산(198m) 줄기가 말발굽(U) 모양으로 구부러지면서 마을을 둘러싼 모양새로 천혜의 항구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유곽이 두 개나 있을 정도로 인구가 많았고, 돈도 흔했다. 고래잡이와 조기 파시를 앞두고는 만선의 꿈을 안고 모여든 어부들과 술집, 다방 등으로 불야성을 이뤘던 것으로 전해진다. 태풍이 올라오면 중국과 일본 배들까지 들이닥쳐 대한민국 군경이 감



시에 나섰던 때도 있었다.

섬에 머문 시간은 해립호에서 어청도 등대까지 오가면서 소요된 두 시간 남짓. 섬 주민들과 대화는 물론 전횡 장군을 모신 치동묘를 비롯해 조선시대 봉수대 터 등 유적지 역시 구경도 못했다. 언제 날을 잡아 다시 방문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아래는 포럼 첫날 해립호 휴게실에서 진행된 김동익 단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군산대 산학협력단 목표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군산대 선상포럼이 올해가 9회째다. 그동안 성과는?
"초기에는 천목 수준에 머물다가 2012년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 지원사업(LINC 사업, 전국 57개 대학 선정 지원, 1개교당 평균 40억 정도 사업비)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4년 부임한 나의균 총장이 산학협력을 대학발전의 핵심 전

략으로 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예: 논문이 아닌 산학협력으로도 승진할 수 있는 인사제도 등)를 갖추면서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를 한두 개 소개한다면?
"기업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사회 맞춤형 4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한국 대학신문에서 주최하는 분야별 우수대학 선정에서 산학협력 부문 대상을 받았고, 2015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도 신소재 공학도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것 등이다."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이 추구하는 목표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이다.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고 지역 산업체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350여 명의 교수가 가진 지적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 공급하며 군산대가 보유한 다양한 시설, 장비들을 지역 산업체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은 산업체와 대학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협조해오고 있다. 그밖에 가족회사 포럼, 산학협력을 위한 전공별 협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매년 개최하는 선상포럼도 그중 하나다."

대학 발전, 논문만 쓰고 교육하던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야

-올해(2016년) 군산대 취업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군산대가 중하위권에서 맴돌았는데 몇 년 사이에 중상위권으로 진입했다. 대학정보 공시제를 통해 발표된 2016년 군산대 취업률이 특수목적 국립대를 제외한 전국

35개 국립대학 중 2위(62.1%, 1위 창원대-63.2%)를 차지했다. 이는 학생 대비 취업률로 십여 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본다."

-군산대가 보유한 지적 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등)을 기업체에 양도하고 받는 기술이전 수입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 수치는?

"지적 재산권 연간 수입금이 2012년 1억 500만 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3억 21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고무적인 성과는 군산대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개발하였고, 이러한 기술을 기업체의 필요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전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등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비율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현장실습 이수비율은 2012년 3%에서 2015년 25%로 8배, 캡스톤디자인 이수비율은 15%에서 4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군산대학과 지역 기업들 사이에 산학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신소재공학과 교수이자 산학협력단 단장으로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핵심인재 양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싶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취업률 높이겠다. 일부에서는 '대학이 취업준비 기관이나' 하는 반론도 있지만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의 최고 관심사가 졸업하면서 자기 전공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률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김동익 단장은 "지역 산업발전 성장 모멘텀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모델에서 찾고 있다"며 "우수대학 진학을 목표로 외지로 유출되는 중고생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부딪친 이때 대학이 발전하려면 단순히 논문만 쓰고 교육하던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인큐베이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느 날, 양기씨의 친구 태원씨가 말했다.

“여의도 광장에서 10만 명 모아놓고 하자. 우리도 외국 사람들처럼 공연 할 수 있어.”

양기씨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 걱정이 앞섰다. 음악할 거라고 말했던 담대한 배짱은 평범해져갔다. 외국으로 나가서 음악 할 기회가 왔는데도 물러섰다. 음악성보다는, 돈 벌 수 있는 곳에 갔다. 밤무대에서 연주했다. 가수들의 지방 투어 콘서트에 세션으로 참여했다. 지금으로 치면, 기획사들의 프로젝트 그룹에 참여한 셈이었다. 가수들은 히트곡 한 곡을 가지고도 평생 동안 음악을 할 수 있다. 드러머는 생명력이 짧다. 당대 최고라고 손꼽아주는 그룹에서 드럼을 연주했다고 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오래 남지 않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골에 혼자 남은 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고 와서 같이 살면서도, 그는 여전히 음악하는 사람이었다.

“제가 서른네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나가 사는 군산에 왔어요. 1997년도예요 근데 ‘직장인 밴드 모집’을 본 거예요. 가보니까 연습장이 천막이예요. ‘진포 축제’에 참여하려고 준비하더라구요. 축제 끝나고는 우리 밴드가 아예 ‘진포문화예술원’의 직장인 밴드로 들어갔어요. 어찌다보니 직장인 밴드의 회장을 제가 맡고요.”

2001년, 군산 진포문화예술원은 ‘청소년 락 페스티벌’을 열었다. 박양기씨가 맡아서 했다. 그는 유명인이 된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씨에게 “군산에 놀러온다는 생각으로 와서 심사 좀 해주라”고 말했다. <심사위원 ‘부활’의 김태원>이라고 써 붙인 포스터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근사한 공연 뒤에는 “박양기가 준비했구만”이라는 말이 뒤따랐다.

“2002년부터 진포(문화예술원)의 사무국장을 했어요. (웃음) 무보수죠. 다 직장에 나가니까 상근자 할 사람이 없잖아요. 진포의 전통은 ‘정월 대보름 굿’이예요. 그거 하려면 두 달 전부터 백여 명을 만나야 해요. 달집에 쓸 이영도 만들고, 대나무도 꺾어야죠. 요즘에는 지푸라기로 소 사료를 만드니까 아는 농가에 미리 부탁을 해요. 지푸라기 남겨놓으라고요.”

프로그램도 매년 똑같이 할 수는 없죠. 부스 자원봉사자도 관리하고, 시 공무원 만나서 일정도 조정하고요. 교통비도 많이 들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대보름 굿이나 청소년 행사 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행사 예산이 이삼백만 원이예요. 남을 수가 없어요. 돈 못 벌죠. 그러면 저한테 또 물어요. ‘돈도 안 되는데 뭐 하러 하냐고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웃고 어울리는 힘으로도 산다. 그때 필요하게 문화다. 양기씨는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환호할 때면 쾌감을 느낀다. 힘들게 준비했던 기억은 사라진다. 그

래서 진포문화예술원 사무국장을 12년간 했다. 그 자리를 내려놓고는 진포문화예술원 원장이 되었다. 직함만 바뀌었을 뿐, 양기씨는 여전히 1인 실무자로 일한다.

그렇다면, 박양기씨는 어떻게 먹고 살까. 그는 진포에서 풍물을 알았다. 국악은 악보가 없다. ‘덩기덕 쿵 더러러’라고 써서 익힌다. 때마침 난타 공연이 유행이었다. 드러머였던 그는 음표가 있는 난타 곡을 만들었다. 양기씨가 만든 화려한 곡은 저마다 악보가 있다. 조금만 배우면 바로 보고 칠 수가 있다.

“저도 진포 덕을 봤어요. 오래 전인데, ‘락페’ 하는 날에 비 온대요. 그래서 강당을 섭외 하러 서해대 음악과 교수님을 찾아갔죠. 나중에 저희 행사 보고는 놀라시더라고요. 실용음악 하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온다고요. 저보고는 ‘실용음악과 만드니까 학교 오라대요. 2005년에 만학도가 된 거죠. 졸업하면 교원자격증 2급이 나와요. 음악 학원을 차릴 수가 있죠.’

서해대를 졸업한 박양기씨는 김제에 음악학원을 차렸다. 군산에서 하던 일은 그대로였다. 난타와 드럼을 가르치면서 진포문화예술원 일을 했다. 9년간 운영한 학원은 작년에 그가 ‘군산시민예술촌’ 총장을 맡으면서 정리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군산 개복동 거리에 시민예술촌이 있다. 그는 거리에 활력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100년의 소리

‘근대사 소리 박물관’
이종간 관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우리 근대사에서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직, 간접으로 전달해준 것은 신문물로 등장한 라디오, 축음기, 녹음기 등의 음향기기들이었다.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은 기계 문명의 발원지인 서양에서 발명되어 동양으로 전달되었는데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 들어 비로소 접하게 되며,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의 초기 원시적 형태에서 최근의 첨단 기기들로 진화해 오는 동안 인간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의 요소로 자리하게 되었다. 최근 개정면 윤희리에 개관 준비 중인 ‘근대사 소리박물관’은 지난 100여년 우리의 생활과 함께 해 온 각종 음향기기 등을 수집, 전시하는 민간 박물관으로서 관장인 이종간(李鍾艮/67)씨가 평생 수집한 다양한 기기들로 80평 공간이 꽉 차 있다.

본래 윤희리 송호부락 농가에서 출생한 이 관장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전기기사로서 중학생 시절부터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 조립하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의 라디오를 고쳐주며 점차 음향기기에 대한 관심과 소질을 키운 학생이었다. 이 관장이 본격적으로 음향기기 수집에 나선 건 80년대 들어서다. 당시 30대 초반이던 그는 구식 라디오나 축음기, 녹음기, 전축 등을 하나둘씩 수집하는 재미에 빠져 군산은 물론 전주를 비롯하여 서울의 청계천 일대와 황학동 도깨비시장, 종로3가 등의 골동품상과 대전의 고려당 등 전국을 누비고 다니며 본격적 수집에 나서게 된다.

전시된 기기들은 종류도 다양해서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인 110년 전의 에디슨 축음기(실린더형), 10인치 원반형 축음기, 배터리 진공관 라디오를 비롯해서 전기 발명 후의 진공관 라디오, 전축, 카세트오디오 및 레코더, 녹음기, 영사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100년 전 발명된 수동식 계산기, 타자기, 60년대 LP플레이어, 악기 등 워낙 종류와 수량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거니와 빅터 레코드에서 취입한 준향전 SP음반도 상,하권 20장의 원판 그대로 전시되고 있다. 1877년 제작된 초기 에디슨 축음기는 왁스로 만든 원통에 음파가 수직으로 파여진 곳을 알미늄 호일로 쓴 실린더 형 화귀품으로서 현재도 소리의 재생이 가능하다.



많은 수집 활동 중 이 관장의 기억에 특히 남는 것은 25년 전 전주 용머리고개에서 '조선방송협회 인정2호' 수신기 라디오를 우연히 발견한 사건이었다. 당시 그 라디오는 오사카 호근무선에서 제조한 히터전압 6.3V 진공관 국민수신기로 안쪽에는 '조선방송협회 검사필'이라는 고무인이 선명하게 찍혀있어 진품이 확실했다. 너무도 희귀했던 제품이라서 가슴이 벅차오른 이 관장은 즉석에서 구매의사를 밝혔더니 당시 화폐단위로 5만원에 팔겠다는 것이다. 이 관장은 내심 싸다는 생각에 당장 사겠다고 했더니 주인은 구매자의 반응을 보고 너무 싸게 불렀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금세 말을 바꿔 30만원 아니면 안 팔겠다고 했다는데 당시 30만원이면 축음기 2대 값에 맞먹는 거금으로서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무리였지만 이 관장은 워낙 욕심이 나는 제품이어서 흔쾌히 값을 치르고 손에 넣었다. 그 외에도 1925년형 마그나박스 5구 진공관 라디오의 경우 1924년 12월10일 우리나라 최초 시험방송 라디오 모니터용 모델로서 1927년 2월16일 경성방송국(JODK)이 첫 전파를 발사하면서 일본인이 본격적으로 들여온 건전지로 작동되는 기기다.

그러나 수집 못지않게 어려운 것은 감당할 수 없게 늘어가는 기기들의 보관 장소였다. 그러다보니 집도 좁은데다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아무짝에도 쓸 데 없어 보이는 골동품을 사들이는 남편에 대한 부인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짐작이 어렵지 않은데 고심 끝에 그는 아깝기 그지없었지만 수집품 일부를 수원 KBS 방송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80평의 창고 형 건물 안에 현재 전시된 수량은 이 관장 자신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데 필자의 눈대중으로도 대략 800~1,000 점은 되지 않나 한다.



필자의 과묵한 탓도 있겠으나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희귀한 이 수집품들은 지난 100여년 세월동안 우리의 생활 주변에 존재했던 것이고 대개는 그 분야의 종사자거나 재력이 아니면 구경조차하기 힘든 골동품이어서 값으로 따지기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근대사의 애환을 담은 역사적 기기들이라는 점에서 이 관장 개인의 재산 가치를 떠나 우리 군산의 자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크다. 이 관장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향후 전시관을 좀 더 체계 있게 꾸며 공개할 계획이라며 그에 따른 세부적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는데 박물관이 제대로 면모를 갖추게 되면 비록 개인의 소장품이기는 하지만 일반 시민은 물론 학생들의 견학 장소로도 훌륭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여 시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 방안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근대사소리박물관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242-2
이종간 관장
HP.010-4643-4647



먼저 상설공연단을 뽑았다. 공연단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철길마을, 근대역사박물관, 은파에 가서 공연부터 했다. 차츰 팬이 생기면서 “시민예술촌에서 공연하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라는 말이 나왔다. 사람들이 ‘죽은’ 개복동 거리로 찾아왔다. 상설공연단의 ‘두둥사운드’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그룹으로 성장해서 음반도 냈다.

“상설공연단이 은파에서 좀비 콘서트를 했어요.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도 다 좀비 분장을 하고 즐긴 거예요. 청소년한마음대회 때는 팝핀현준이 게스트로 와 줬어요. 몇 만 원을 주고 봐도 아깝지 않은 공연을 다 같이 본 거죠. ‘나도 MC’라는 강의도 열었고요. 우리나라 MC 중에서 박사 출신 1호인 노동인씨가 사회 보는 법을 알려줬죠.

아무 꿈이 없다는 ‘가온누리학교’ 아이들에게는 색소폰을 가르쳤어요. “니네 잘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애들인데, 가르치는 교수님이 잘 한다고 하죠. 얼마 전에는 공연까지 할 정도가 됐어요. 군산에도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오디션 봐서 판소리, R&B, 락, 발라드, 해금 연주하는 15팀을 뽑았어요. 옴니버스 음반을 내고 발매기념 콘서트도 하고요.”

양기씨는 공연할 때 뿔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좋아한다. 전국 버스킹 대회는 세 번째 진행했다. 실력과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했다. 좀비콘서트를 했던 공연단은 오는 12월에 파자마 콘서트를 할 거란다. 친구들이랑 놀러온 기분이 들게 무대는 팬션처럼 꾸몄다. 소파와 침대, 냉장고가 있다. 그날의 드레스 코드는 파자마, 또는 헐렁한 옷이라고.

양기씨는 월급쟁이로 산 적 없다. 딱 한 번, 군산시민예술촌 촌장이 되면서 받을 뻔 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기질은 야행성, 사람들은 밤에 더 찾아온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일하는 직원 두 명으로는 부족하다. 예산도 한정되어 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명예직이 되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할 사람을 한 명 더 뽑았다.

“제가 월급을 받았다면, 위탁해준 군산시하고도 갑을 관계가 돼요. 근데 저는 돈을 안 받으니까 할 얘기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죠. 저한테는 자생력이 있잖아요. 난타 수업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요. 월급만큼은 아니어도 먹고 살 만큼은 돼요. (웃음) 솔로니까 가능하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제 고민은 여기를 살리는 거예요. 길 하나를 두고 월명동은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늘 연구해요. 여기에 극장이 있으니까 공연장도 되고, 인문학 강의도 할 수 있어요. 유시민 작가도 여기서 강연을 하셨잖아요. 시민들이 와서 쓰는 곳이에요. 직장인 밴드는 그냥 와도 바로 연습 가능해요. 악기가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1시간에 5천 원만 내면 되거든요.”

양기씨는 스무 살 때 꿔던 꿈을 이루지 못 했다. 여의도 광장에서 10만 명 모아놓고 공연하는 드러머하고는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나 음악을 놓은 적은 없다. 늘 생활을 고민하며 버텨야 하는 문화예술, 양기씨는 문화기획자. 햇볕을 쬐여주고, 물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음악은 그에게 생계수단이자 삶의 이유다.



교통장애인들 '교통 3악을 추방하자!' 외쳐

한국 교통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 스케치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안전운전 행복약속,
난폭운전 불행약속!
아차하면 평생장애,
방심말고 조심하자!”

지난 17일(월) 오전 11시,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회장 나두길)가 주최한 교통안전 캠페인 참가자들이 외친 구호다. 이날 군산시청 광장에서는 장애인 및 시민 300여 명이 모여 교통 3악(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졸음운전 등) 추방 결의대회를 가졌다.

구름 한 점 없는 청자빛 가을 하늘로 올려 퍼진 교통안전 캠페인 구호는 운전기사의 책임의식 부재와 안전불감증으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그런지 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이기도 장애인 교통안전 캠페인 전국순례단장은 “우리나라는 매년 100만 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발생률도 상위권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가 1년 총예산의 10%에 육박한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가 ‘국민행복’이고, 재난 및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안전처’까지 신설했으나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안타까워했다.

이 단장은 “우리 순례단은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졸음운전, 안전띠 미착용, 음주운전 이 세 가지를 ‘교통 3악’으로 규정하고 <교통 3악을 추방하자!>는 슬로건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섰다.”라며 “오늘의 군산 행사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나두길 회장 선창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사진 위부터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나두길 회장
김양원 군산시 부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



교통사고 예방 구호들

이기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전북협회장은 “나날이 늘어나는 교통사고로 당사자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며 자녀들에게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교통사고 캠페인을 통해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라며 전국 순례에 나선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그는 “교통사고는 정부와 관련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질서와 법규를 지키고자 하는 높은 시민의식과 교통사고 근절 운동에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기도, 경북, 전남, 충남 등 전국의 시도 지역 협회장 및 지회장을 비롯해 김양원 군산시 부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 전북도의원, 군산시 의원, 김귀동

장애인협회 자문변호사, 채정룡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장종진 군산 장애인연합회 회장 및 임직원 등이 참석, 교통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교통사고로 인한 불행,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김양원 부시장은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교통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은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들로 교통사고의 쓰라린 경험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오늘과 같은 캠페인 행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데, 군산시에서도 교통장애 회원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정희 의장은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하루에 13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고령자 교통사고는 OECD 국가 중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교통사고는 가정 파괴의 주범임에도 뺑소니,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웃의 불행을 막고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서준, 특히 멀리서 참석해준 지역 회장 및 순례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장병순(66) 할머니는 “나는 1990년 봄날 관광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전동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죽고 싶은 심정

에 집에서만 지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도 해주면서 지낸다. 교통사고로 인한 불행은 내 세대에서 끝내야지 후세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나오게 됐다”라고 말했다. 장 할머니는 “열심히 노력했더니 회원가입 16년 만에 표창장도 받는다.”라며 활짝 웃었다.

나두길 회장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2만3552건이고, 사망자는 4762명(하루 13명), 부상자는 33만7497명(하루 925명)이었다. 이 수치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추방 등 교통질서 캠페인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계획을 전했다.

나 회장 설명에 따르면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방지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설립된 비영리 장애인 복지단체다. 군산시 지회는 교통사고 피해당사자인 회원들의 재활 증진과 권익보호,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및 재활상담, 교통안전 캠페인, 순회교육,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교통안전 캠페인은 나두길 회장의 결의문 낭독과 교통사고 예방 구호 제창으로 마쳤다. 아래는 나 회장이 낭독한 결의문 전문이다.



(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군산지회
군산시 구영1길 138-2
(군산시 영화동 14-1)
063-465-1787



열심히 살다보니 표창도 받는다며 활짝 웃는 장병순 할머니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석한 회원들

제18회 장애인 교통안전 전국순례 결의문

우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 회원은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졸음운전 '교통 3악(惡)'을 추방하자!>는 구호가 전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 캠페인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신체 기능의 일부를 잃거나, 구조적 기능의 상실로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된 교통장애인입니다. 교통사고가 우리 삶과 가정에, 끔찍한 아픔과 좌절을 주었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교통사고의 심각한 피해를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교통 현실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우리 사회에서 교통사고를 추방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달성하고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데 앞장설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패가망신 불러온다!

하나. 안전벨트 생명벨트, 우리가족 지켜낸다!

하나. 깜박졸아 생긴사고, 죽음으로 바로간다!

하나. 안전운전 행복약속, 난폭운전 불행약속!

하나. 아차하면 평생장애, 방심말고 조심하자!

2016년 10월 17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 일동



변호사 사무장
홍성호 씨가 들려주는

우리 고향 천주교 이야기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군산 조촌동 소재 소정운, 이세나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홍성호 씨는 고조부 때 받아들이 천주교 신앙이 자신의 자녀에까지 6대 째 이어질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둔울동성당에서 유아 세례도 받았던 그는 현재 성당의 홍보부장 직을 맡고 있기도 한데 오래전부터 조상의 발자취를 더듬다가 자연스레 천주교의 역사와 만나게 되었고, 학구적 호기심으로 천착하다보니 이제는 관련해서 책의 출간을 준비할 정도로 많은 자료를 축적하게 되었다. 본래 어려서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 사학을 전공하고 싶었으나 취업 전망 때문에 경영학을 택했던 홍 사무장은 이후 직장인으로 살아오면서도 역사에 대한 탐구심을 떨칠 수 없었고 지금도 시간이 날 때면 우리 고향은 물론 타 지역의 역사적 유적지나 흔적을 찾아 답사를 다닐 정도로 열혈 민간 사학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천주교와의 만남

그의 집안과 천주교와의 만남은 18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흥 사무장의 고조부께서는 개성에서 거주했는데 부인과 사별하게 되자 며느리의 소개로 새로 맞은 후실은 30대 처녀로서 천주 신앙을 가진 여성이었다. 따라서 자연스레 천주 신앙을 접함으로써 신자가 되었고 이듬해 증조부가 출생한다. 그 때는 병인박해 끝 무렵으로서 그 여파가 개성에까지 미치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고조부는 개성에 남고 고조모가 아들만 안고 배 편으로 안면도 누동리 교우촌으로 피난길에 올라 안면도에 정착한 뒤 옹기가마 업자의 뒷돈을 대주는 거상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다가 1885년 조·불(朝佛)수교의 체결로 천주교가 공인되자 다시 개성으로 귀환했다가 1900년도에 셋째 이하 자식들만 데리고 군산으로 이주, 일제 강점기 초인 1913년 증조모 명의로 영동에 상가를 구입하며 정착하게 되는데 당시로서는 신문물이랄 수 있는 맞춤옷 전문점인 안선상회를 개업, 장안의 멋쟁이들은 포복상이던 개성상회에서 천을 구입하여 안선상회에서 옷을 맞춰 입었다.



개성상회 가족사진

1935년 중 강복식(둔울동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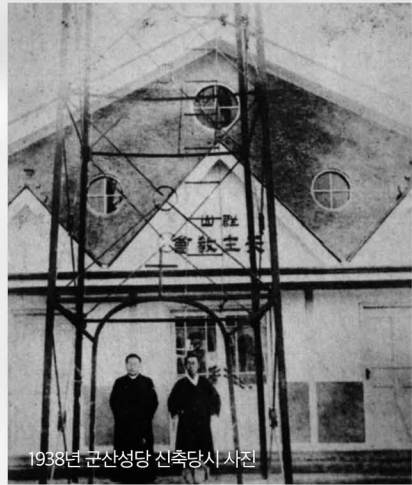
증조부



증조모



나바위 성당 1930년경 군산공소 신자 첫영성체



1938년 군산성당 신축당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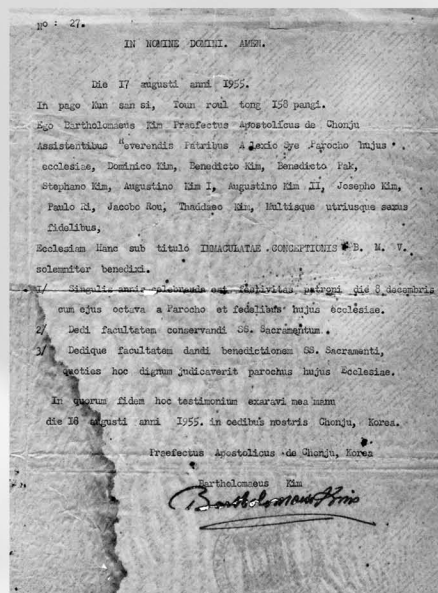
중조부가족사진



1940년 건진기념

교우촌과 공소

18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고장엔 임피 산곡리 교우촌을 중심으로 15개소, 옥구 1개소, 함열 9개소 등의 교우촌이 산재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민이 많은 곳은 40여 호 이상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교우촌은 교인들이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룬 마을로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 보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이것이 그대로 공소로 발전하게 된다. 공소는 신부가 주재하지 않고 순회 미사를 갖는 경당으로 이들은 한국식 천주교 문화 형성에 근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후일 지역의 성당 설립에 초석으로 작용한다. 1900년대 천주교에서 발행하는 월간 경향잡지 및 신부들의 일기, 보고서 등에 따르면 문헌상 최초의 공소는 1882년 설립된 사옥개 공소를 필두로 1887년 세동공소, 이듬해 흥법공소, 1891년 서당골 공소, 1895년 창감 공소가 설립되었고, 1896년 성산면 산곡리에 주택을 구입, 개설한 산곡리 공소는 교우 집에 개설된 이전까지의 형태와 달리 군산지역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공소라 할 수 있다. 1900년에는 서수의 옥하 공소와 마룡 공소, 축동 공소가 설립되며 이후 1920년 경 주교 몇 분이 군산을 방문, 옛 신영동사무소 자리에 건물을 마련, 군산항 공소가 개설된다.



1955년 주교 공문

군산본당 설립

또한 1897년 뮌텔 주교가 전라도 북부지역(군산)과 남부지역(목포)에 성당 설립 의지를 가지고 신부들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북부지역 담당인 베르모렐 신부는 군산이 개항 이전이고 규모도 작아 불가하다고 보고 대신 강경에 성당을 설립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이 있자 나바위에 성당을 설립하고 군산지역을 나바위 성당 관할로 편입하였다. 군산항 개항 직후인 1900년 군산에 성당을 설립하고자 공베르 신부를 파견하였으나 당시 군산항 지역에 신자가 1가구만 있어 부여 금사리 성당 설립으로 계획이 변경된다. 이후 1920년경 나바위 본당 카다스 주임신부는 군산본당이 설립되면 조선인과 일본인 약 800여 명의 교우들이 모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1911년도에 신설된 대구대목구는 군산본당을 신설할 재정적 어려움을 들어 다시 무산되고 만다. 이후 1925년 나바위 성당 보좌신부 겸 군산 신설본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김영구 신부는 나바위 성당과 군산 공소에 머물면서 군산본당 설립에 박차를 가하여 1930년 교구 지원금 천원과 신자들의 모금 등 3,500원에 군산시 둔율동 156번지 대성원을 매입하고 그 부속 건물을 사제관으로 개수하게 되는데 이로써 본당 설립의 물꼬를 튼 셈이다.

당시 군산본당의 교우는 약 200명으로 산하 공소의 400명까지 전체 600여명과 일본인 신자도 약 60명이 있었고 대지 약 240평에 15칸의 건물로 출발하였다. 그러다가 1937년 구옥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게 되는데 공사비 3천원을 투입해 54평의 화양식 목조건물로 성당을 신축, 김양홍 교구장 주례로 낙성식을 갖고 사용하게 된다. 이후 1944년 성당 옆의 야산(현재의 본당 건물, 사무실동, 가톨릭회관, 성모동산 부지)을 매입, 1955년 8월17일 현재의 성당을 준공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토록 오랜 난관 끝에 설립의 빛을 본 둔율동성당을 시작으로 시세(市勢)가 확장되면서 익산 남부지역(옛 이리)지역의 성당과 대야 및 월명, 룡룡, 팔마, 조촌, 옥봉, 미룡, 나운, 축동, 소룡, 지곡, 수송 등(군산지역 13곳)의 성당이 설립됨으로써 가톨릭 신앙의 요람으로 자리하게 된다.

변호사 소정운·이세나
법률사무소
사무장 홍성호
063)452-5700



“내 사명은 주검 돌보면서 유족 위로하는 일”

17년 경력의 양성용 월명장례식장 장례지도사를 만나다

글 | 조종안(시인기자)
chongani@hanmail.net



국교가 유교였던 조선은 3년 상제(삼년상)를 중요시했다. 삼년상은 사대부와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됐다. 그러나 조정은 사대부 계층에만 강요하였고, 일반 백성에게는 100일 탈상을 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상례(장례) 역시 왕가(王家)에서는 3월~5월, 사대부는 9일, 백성은 삼일장이 보통이었다. 화장(火葬)을 금했으며 불교와 함께 사머니즘 관습도 규제하였다.

상례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지낼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를 말한다. 이는 우리의 전통 관습이 잘 나타나는 통과의례로 죽음이 임박한 시기부터 운명한 후 시신을 처리하는 염습과 염의 의례, 죽은 자를 저승으로 떠나보내는 발인과 매장 에 따르는 의례 등 상주들이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매장 후부터 상복을 벗는 탈상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기자말



고인의 마지막 길 안내하고도 사회에서 냉대받아

군산 지역 상례도 유교 예법서 규정을 따랐다. 대표적인 지도서로 <사례편람>(四禮便)을 꼽는다. <사례편람>은 조선 후기 대학자 도암 이재(李穡·1680~1746)가 맹목적으로 행해지던 ‘주자가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손질해서 펴낸 예절서이다. 유교식 상례는 지역과 가문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 광복 후에도 계속 행해지다가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과 ‘가정의례준칙’으로 간소화됐다.

장례식장이 없던 농경시대에는 염(殮)을 고인의 집에서 했다. 1980년대만 해도 ‘객사’를 두려워하던 시절이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안방에 병풍을 치고 시신을 모셨다. 상복은 솜씨 좋은 마을 아낙들이 밤샘하면서 만들었고, 염은 자손과 친척이 지켜보는 가운데 2~3명의 경험자가 하였다. 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험한 일을 하고도 ‘염쟁이’ 소리를 들으면서 차별과 냉대를 받았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돌보면서도 명함 하나 떼뒀하게 내놓지 못했던 그들. 1970년대 이후 장례식장이 등장하고 대학에 장례 관련 학과가 신설되면서 장례 유망 직업으로 떠오른다. 2012년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자격증(장례지도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예전 염쟁이, 염사, 장의사를 대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장례식장을 평생직장으로 여기고 17년을 끈둔하게 열심히 살아온 양성용(51) 장례지도사. 지난 19일 군산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그와 만남은 두 번째, 첫 만남은 기자의 장모님 장례식을 치르던 2012년 초가을이었다. 염에서 매장까지 상례를 주도하는 그의 표정이 너무도 진지하고 차분해서 대화의 자리를 갖고 싶었는데, 4년 만에 이뤄진 것. 아래는 양 지도사와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외환위기 때 장례지도사 길로 들어서

-염하는 일을 1999년부터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 전 직업은?

“처음 직업은 트럭 기사였다.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한푼 두푼 구두쇠처럼 돈을 모아 5톤 트럭을 장만했다. 잘 나갈 때는 덤프차도 구입해서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건설회사에서 수주도 따내는 등 사업에 재미를 붙였다. 그렇게 잘 나가던 1990년대 중반 어느 날 갑자기 일감이 줄기 시작했다. 이어 IMF(외환위기)가 몰려왔고 결국 빚잔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직업 놔두고 장례지도사 길을 택하게 된 배경은?

“외환위기 때 살던 집까지 날리고 전세살이를 시작했다. 재산을 모두 처분했지만, 빚이 완전히 청산된 것도 아니고 눈앞이 깜깜했다. 매월 꼬박꼬박 나가는 이자에 아이들 교육비, 최소한의 생활비 등 남의 집 머슴살이라도 해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당장 일자리는 없고 그렇다고 거리로 나왔을 수도 없고 죽고만 싶었다.

1999년 어느 봄날이었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경기도 오산에 사는 선배에게 전화했더니 마침 사람을 구하고 있다면서 보자고 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고 묻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아내에게 일자리 알아보겠다는 말만 하고 곧바로 올라갔다. 물어 물어 어렵게 찾아간 곳이 장례식장이었다. 충격을 받았지만, 뭘든 해야겠다고 결심한 터여서 두려울 게 없었다.”

“아내는 지금도 장례식장 사무직원으로 알아”

-처음 시신을 관리하면서 무섭지 않았나?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시체를 봤지만 무덤덤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시신을 보관한 냉장고 옆에서 밤을 새우는 등 담력 키우기 훈련을 하면서 의지로 버티었다. 그라고 선배가 염할 때 옆에서 거들면서 하나씩 배워나갔다. 1~2년 지나자 사고사, 자연사, 변사, 사산아 등의 시신도 거리낌 없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할 수 있었다.



놀라운 것은 막연하게나마 예(禮)와 효(孝)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봉합해야 했고, 변사로 부패한 시신은 훼손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했다.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는 무연고 시체도 많았다. 경험이 쌓이면서 예와 효를 깨우치게 됐고 시체에 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노숙자나 가난으로 자살한 시신은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염습 배운다고 했을 때 아내의 반대가 심했을 것 같은데?

“처음 장례식장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알면 충격받을 것 같아 당분간 숨기기로 하고 사무직에 종사한다고 했다. 아내는 지금도 장례식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장모님이 얘기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객지생활 할 때 장모님이 아내와 함께 지냈고, 지금도 모시고 있다. 그래서 몇 년 전 장모님에게만 살짝 얘기했더니 ‘자네는 죽으면 천당에 갈 것’이라고 했다. (웃음)”



주검을 돌보는 그 자체가 보람 있는 일

-자격증 제도(2012) 시행 후 장례지도사 대우가 달라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미비한 수준이다. 대인관계 등 사회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지?

“사람들 생각처럼 수입도 그리 높지 않고, 처우도 개선되지 않았다. 퇴직금은 물론 야간 수당도 없다. 대인 관계도 직업과 관련된 사람 아니면 되도록 만남을 피한다.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사람을 돌본다’는 자부심을 품고 종사하고 있다. 내 사명은 주검을 돌보면서 유족을 위로하는 일이다.”

-일을 하면서 속상할 때도 있고 보람을 느꼈을 때도 있을 텐데?

“내가 필요하다는 곳이면 장례식장이든 사고현장이든 달려가 정성껏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는 등 열과 성을 다한다. 장례를 마치고 수고했다며 손을 잡아주는 유족도 고맙지만, 주검을 돌보는 그 자체가 보람이다. 그래서 그런지 흉하게 훼손된 시신도

부모 같고, 할아버지·할머니 같고, 형제자매처럼 애뜻하게 느껴진다. 어디 나쁜이겠는가. 장례지도사 모두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취중에 시비를 걸거나 사사건건 트집 잡는 유족도 있다. 어이가 없지만 그럴 때는 ‘슬픔의 다른 표현이겠지’ 하고 흘려듣는 게 상책이다. 실망하고 속상했던 장면은 부모 시신을 앞에 두고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이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이다. 싸움 형태도 다양한데, ‘울게가 잘못 모셔서 아버지가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다’는 대목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많을 때는 하루에 시신을 열 구 이상 처리할 때도 있었다는 양성용 장례지도사. 그는 “늙은 나이 영향도 있겠지만, 염을 하면서 삶을 배웠다. 길을 가다가 노인이 홀로 외롭게 앉아 있으면 한 번 더 쳐다봐진다. 얼마 전에는 자살한 여학생 시신이 팔처럼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왔다. 그런 걸 보면 장례지도사란 직업이 팔자에 타고난 모양이다.”라며 허허롭게 웃었다.

월명장례식장
군산시 신관동 18-3
063-468-4851~2



-장례지도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장례지도사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 상담, 시신관리(시신 보관, 소렴, 대렴 등), 의례지도 및 빈소 설치, 발인, 매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요즘엔 보통 삼일장을 치르기 때문에 입관 절차도 사망 후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한다. 이렇듯 하는 일이 복잡 다양하다. 한마디로 장례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사망하면 입관하기 전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인이 사망 직전 입고 있던 옷을 탈의하고 하얀 배넛저고리를 입힌 뒤 칠성판에 눕혀 모신다. 이 과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유족이 볼 수 없는 그 전 단계가 더 힘들다. 특히 사고사를 당한 시신은 온몸이 상처투성이라서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유족이 봐서 가슴 아프지 않도록 번도 닦아내고, 얼굴에 메이크업도 하고 끈 하나도 정성껏 조심스럽게 수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뭐니 뭐니 해도
“곱창이
최고예요!”

문혜영 사장님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수송동 보건소 건너편 먹자골목에 소재한 이색 상호 ‘곱창이 최고예요’ 수송점은 약 36평의 쾌적한 실내 공간을 갖춘 말 그대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업소다. 시내에 곱창전문점은 켜지만 이 집의 곱창, 갈비는 단연 별미로 알려진다. 업주인 문혜영 사장에 따르면 개업 했수도 어느덧 8년에 이르렀는데 2008년도에 미용동에서 오픈, 4년간 영업하다가 2012년 5월 수송동으로 이전했다 한다. 원래 문 대표는 젊어서 미용을 공부,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군산에 내려와 12년 정도 미용실 운영 경력도 지냈는데 그러다가 미용 일을 접고 전혀 분야도 다른 곱창 점을 오픈하게 된 것은 미용업 운영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던 데다가 무엇보다 자신이 평소 곱창요리를 너무도 좋아했기 때문이라며 웃는다.

음식은 재료, 정성, 손맛

음식 맛은 재료와 정성과 조리하는 이의 손맛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주지의 상식이다. 따라서 이 셋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될 시 원하는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 문 대표가 자신의 업소 상호를 ‘곱창이 최고예요’라 한 데서 알 수 있듯 곱창은 물론 이 집의 모든 음식은 시각적으로도 군침을 돌게 만들지만 맛 자체도 타 업소의 것과는 확연히 다름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우선 재료의 선정에서부터 꼼꼼한 세척, 절단을 거쳐 커피와 소주, 일부 한약재를 넣어 삶아낸 후에도 정성어린 자신만의 노하우와 손맛을 가미함으로써 별미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고소





한 식감을 주는 곱창은 대파를 잘게 썬 파채를 듬뿍 올려 맛의 조화를 자아내는데 그래서인지 전체 메뉴 중 곱창, 갈비가 50%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목은지 닭볶음(도리)탕도 인기 메뉴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파채를 곁들인 닭발이나 막창 등도 이 집만의 조리 노하우로 차별화된 맛을 내거니와 김치는 항상 질 좋은 배추로 맛깔스럽게 담가 상에 올릴 정도로 정성을 기울이는데 올해도 500~600포기 이상 계획하고 있다 한다.

곱창은 맛을 품은 영양 덩어리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에 콜레스테롤이 낮은 곱창은 식감이 쫄깃하고 고소하기도 하지만 알코올을 분해 성분이 있어 위장을 보호해주며 술이 깨는 것을 돕는 기능이 있다. 또한 무기질과 칼슘,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것은 동의보감에도 나타나 있으며 피부 미용과 피로회복 효능, 그리고 오장육부의 기능과 혈압을 다스리고 당뇨 및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막창은 체내 필수영양소인 칼슘 함량이 소고기보다 높아 어린이의 성장을 촉진하고 성인에게는 골다공증 및 골연화증 예방 효과로 특히 뼈가 약해

진 노령 층에게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어느 음식이나 마찬가지로 맛있지만 곱창이든 막창이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내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차별화된 소스와 육수

어느 음식이든 주재료 못지않게 소스(양념)가 맛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 대표 역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물론 기본적인 소스 만을 쓰는 업소도 많겠으나 자신만의 비방으로 맛을 구현하는 업소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하우는 영업비밀이기도 해서 밝힐 수는 없으나 이 집의 경우 양파엑기스와 매실엑기스, 키위, 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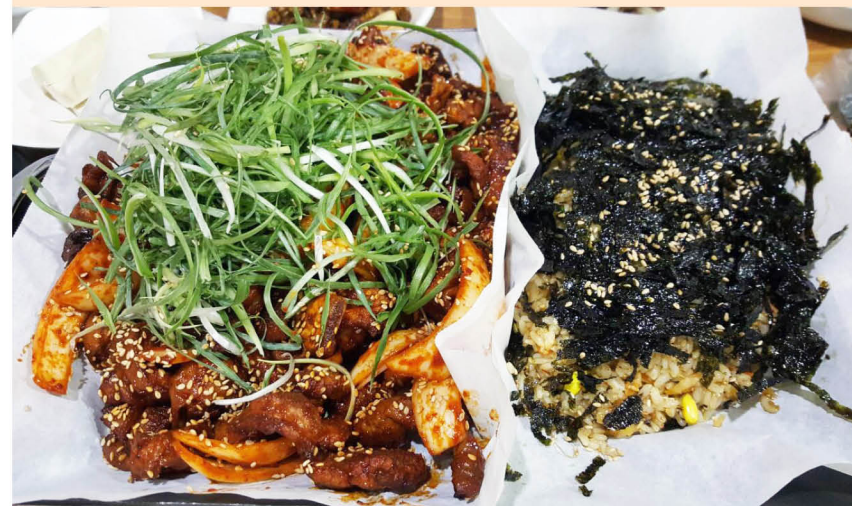
애플에 몇 가지 한약재, 그리고 숙성된 맛술을 가미하는 게 특징이다. 또한 곱창에 제공되는 떡배기 국물 역시 12시간 이상 밤새 연탄불로 고아내서 만드는데 이 역시 시원 구수한 진국 맛이 그만이다.

양심은 모든 것에 우선한 가치

때로 부당한 방법의 알팍한 상술로 당장의 잇속만을 노리는 비양심적 업소가 보도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하는 현실에서 재료 전반에 걸쳐 철저히 신선한 국내산만을 고집하고 모든 메뉴를 자신의 가족상에 올린다는 마음으로 위생과 맛에 심혈을 기울이는 '곱창이 최고예요'는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업소라는 점에서 믿음이 가고 한번 다녀간 고객은 지인들에게 입소문을 통해 점차 단골도 늘고 있는 추세다. 찾아준 고객들이 음식을 맛있게 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최고라는 표정을 지을 때 가장 큰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는 문혜영 대표. 취미를 묻자 여유가 되면 뜻밖에도 드림을 배워보고 싶다는 그녀는 아직은 업소 운영에 에너지를 많이 쏟다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마음뿐이라며 웃는데 후일 언젠가 드림 앞에 앉아 멋진 연주로 또 다른 끼를 보여줄 그녀의 변신을 잠시 상상하며 나도 모르게 흐뭇해진 마음으로 문을 나섰다.



곱창이 최고예요
(수송동 보건소 건너편 두 번 째 골목)
T. 063)466-1149





35만세퍼레이드



근대역사박물관행사장일원

2016 군산 시간여행 축제

역사·관광 대표축제로 우뚝 서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축제 성공 요인
 도내 10월 축제 중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단연 독보적
 타임슬립 고고장 등 야간 프로그램 도입·성공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근대, 추억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3일 동안의 흥겨움을 뒤로하고 더 신명나는 내년을 기약하며 네 번째 이야기의 막을 내렸다.

이번 시간여행축제는 우천에도 35만여 명(‘15년 30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 성황리에 마쳤으며, 시간적 배경의 확장을 통해 아꼈던 우리의 역사를 돌아봄과 동시에 축제로서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이달에는 전북도내 전주, 김제, 정읍 등 타 지자체에서 수많은 축제가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역사·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여유롭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관심이 더욱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한 사전준비 및 편의시설 완비

군산시는 이번 시간여행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목한 결과, 군산시간여행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축제라는 평을 받았다.

시는 예년에 비해 축제 규모가 더욱 커진 만큼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마쳤으며, 직원 300여명과 자원봉사자 100여명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해 교통통제와 축제장 주변 환경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해 축제의 성공을 뒷받침했다.



군산항밤부두공쿠르



군산어린이합창오케스트라공연



특히 올해 시간여행축제장은 관람객 편의시설에 신경을 썼다. 이동약자 편의를 위해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소를 운영하였고, 수유 공간을 마련해 가족단위 관광객을 배려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민 참여도 매우 높아

군산시는 시간여행축제의 주인공은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과 관광객이라는 신념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에 주력했다.

특히 3.5만세 퍼레이드는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를 통해 외래 관광객, 여성단체, 노인회, 걷기연맹 등 각계각층에서 700여명의 자발적 참가자들로 구성된 행렬로, 우리의 송고했던 역사를 기억하는 독립운동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퍼레이드에 참여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서는 군산시간여행의 시작을 함께 했다.

그밖에도 시민들이 손수 제작한 물건으로 운영된 프리마켓,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주먹밥 만들기 등 먹거리 부스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어린이독립군체험

개막식 분위기

퍼레이드에 이어 펼쳐진 개막공연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개막식은 딱딱한 형식에서 탈피해 관객위주의 진행으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축제의 주인공임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냈다.

아울러, 개막식에서는 지난 7월 개발된 '헬로, 모던' BI 선포식을 통해 전북도 토털관광의 일환인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만들어진 군산만의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를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는데 한 몫 했으며, 군산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

축제에는 저마다 핵심프로그램인 킬러콘텐츠가 있다. 그간 시간여행축제장을 한번이라도 찾았던 관광객이라면 해망

굴 입구에서 축제장까지 이어지는 '3.5만세 퍼레이드'의 웅장한 퍼포먼스 행렬과 가족단위 방문객이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독립군체험'을 위해 군산을 또다시 찾고 있다.

▲ 어린이 독립군 체험

지난해 처음 선보인 '어린이독립군체험'은 올해에도 500명 모집정원이 순식간에 마감될 정도로 그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들이 독립투사가 되어 근대 건축관, 신흥동 일본식 가옥 등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찾아 땀을 흘리며 미션을 완수하는 과정을 통해 근대 역사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으며, 어린이 독립군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 쫓고 쫓기는 각시탈

시간여행축제의 주요 체험형 프로그램인 '쫓고 쫓기는 각시탈'은 독립군을 체험하는 어린이들을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



◀ 모던뮤지컬페스티벌
▼ 어린이독립군체험



동춘서커스

라보딘 청소년과 성인들의 뜨거운 참여가 이어져 일본순사들과의 숨 막히는 대결로 인기를 끌었으며, 이제는 시간여행축제의 최고 히트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는 전년보다 더 치열한 예선을 거친 만큼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의 구성지고 화려한 노래 솜씨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는 1930년대 군산의 아픈 역사를 웃음으로 승화시켜, 경연을 바라보는 관람객과 경연자가 하나가 되는 훈훈한 무대였다는 시민들의 평이다.

그밖에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역사적 교훈뿐만 아니라, 축제의 즐거움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근대의상패션쇼, 모던뮤지컬페스티벌, Forever 대학가요제, 번사와 함께하는 타임슬립 고고장 등 '근대, 추억을 만나다'라는 통일된 주제를 아주 잘 표현했으며, 관람객들은 곳곳을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자리를 뜨지 않은 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 프로그램 도입 등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번 축제는 야간 프로그램 등의 도입으로 체류형 관광객이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성과이다. 특히 매일 저녁 축제장 주 무대에서 진행된 '번사와 함께하는 타임슬립 고고장'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추억의 고고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한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몸을 흔드는 진정한 축제 한마당을 이루었다.

근대문화추억놀이



이는 군산을 찾은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야간까지 잡았으며, 축제장 인근 관광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뿐 아니라, 나운동 일원까지도 숙박업소가 만실이 되었다.

또한 축제기간동안 월명동 원도심 일원뿐 아니라 군산시내 전역에는 종일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유명한 짬뽕집, 호떡집, 핫집 등 유명 음식점과 커피숍이 하루 종일 관광객으로 북적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는 등 약 15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발전 방향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기본테마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시민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축제 발전을 꾀 하겠다”고 밝히고, “시간여행축제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군산의 다양한 관광지로 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한 번 더, 하루 더’ 머물고 싶은 군산의 이미지를 세워나가겠다”고 전했다.

근대문화추억놀이



■ 군산시보건소, 장애청소년 성(性) 인권교육 실시

장애 여성청소년에게 여성용품 지원도 함께 해 건강한 성장 도모

군산시보건소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군산 명화학교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중한 내 몸의 주인은 나! 장애인 성(性)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 청소년에게 성(性)에 대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와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성(性)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의 이해, 우리 몸의 이해와 생명의 탄생, 성문화의 이해와 비판, 대인관계 속 사회적응력 향상, 성폭력의 의미와 대처방안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성문화 체험시간에는 남녀 신체의 차이, 아기의 출산과정, 10개월 된 아기무게를 느끼는 복대체험 등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과 함께 장애 여성청소년에게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여성용품(생리대) 지원도 함께 실시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확립해 성폭력 예방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군산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 호황

현장 미션지 학습과 스마트투어로 학생들의 흥미 유발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도시로 우뚝 선 군산시의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가 가을 수확여행 시즌을 맞아 문의 및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군산의 역사탐방 여행서비스를 이용한 학교단체 이용객들은 작년 1만6360명에서 올해 2만2963명으로 전년 대비 40.3%가 증가했다. 군산시는 역사교육중심의 체험학습 제공을 위해 지난해 3월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군산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를 등록했다. 이에 많은 학교에서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으로 군산을 찾았고, 예약 및 문의가 폭주해 일부 날짜는 예약이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는 역사문화탐방 지도사가 해설과 함께 미션지를 제공해 학생들의 현장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준다. 또한 우리역사의 아픔을 알아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되어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만족도가 높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군산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유익한 현장학습이 될 수 있도록 체험코스 및 미션지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쏟겠다”며 “앞으로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접 리포터가 되어 해설을 하고 역사현장을 직접 담아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스마트 투어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는 조달청과 군산시가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여행상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 군산예술의전당, 문화예술활동·예술감상 공간으로 자리매김

군산예술인 공연·전시 창작활동 왕성

군산예술의전당은 군산예술인의 공연·전시 창작활동이 10월 현재 지난해 대비 30% 이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로 접어들며 더욱 왕성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예총산하 국악·무용·미술·사진·연극 등 9개지부 7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외에도 수십 개의 민간예술단체(동호회 포함)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예술단체들의 활동은 2013년 5월 군산예술의전당이 개관하면서 더욱 왕성하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술인 활동의 성장은 군산예당의 가동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문화회관의 공연장 평균 가동률은 55.4%에 불과하지만 군산예당의 경우 2014년 64.4%의 가동률을 보였으며, 2015년에는 메르스의 여파로 61.2%로 약간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70%이상의 가동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시설 또한 2015년 80%의 가동률을 보일만큼 지역예술인들의 참여도는 높았으며, 올해에도 12월까지 전시설 대관 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군산예총 최승호 사무국장은 “예술의전당이 세워지기 전인 2013년 이전에는 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없었던 터라 예술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지금은 서울예술의전당 수준의 군산예술의전당 공연장이 설립되면서 저렴한 대관료로 맘껏 무대를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활동범위가 넓어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예술인의 활동무대는 예술활동을 함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군산예당 설립이후 예술활동이 더욱 왕성해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역예술인의 공연 횟수는 군산예당 전체공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1월중에도 흡소리, 합창연합회, 시민합창단, 전복오페라단, 세광솔라합창단 등이 주관하는 16편의 공연과 누드 사진작가협회, 한국서가협회, 포토스토리 등 10개 단체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시민이 주축이 된 합창단공연과 색소폰, 청소년 전통연희단 등 시민과 직결되는 예술창작활동이 12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군산예술의전당관계자는 “개관 4년차를 맞이하며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썸머페스티벌과 버스킹공연 등을 추진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폭 넓은 공연예술 활동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군산 시간여행 속으로 떠나는 맛길! 멋길! 성황

근대문화자원과 지역 농특산물의 연계로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군산시 월명동 초원사 진관 일원에서 펼쳐진 ‘군산 시간여행 속으로 떠나는 맛길! 멋길!’이 2만여명의 관광객들에게 ‘추억거리 가득한 군산, 재미있는 군산’의 이미지를 심어주며 군산관광의 새로운 콘텐츠 발굴이라는 큰 획을 긋고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전국을 대상으로 한 2016 가을 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군산을 방문하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추억의 먹거리 체험, 근대문화 등을 소재로 한 거리공연, 시간여행 BI(Hello Modern) 홍보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었다. 또한 군산의 근대문화 자원과 우수 농특산물을 연계한 다양한 부스 운영으로 새로운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 가능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군산 시간여행 속으로 떠나는 맛길! 멋길!’의 주요 콘텐츠인 추억의 먹거리 체험은 군산의 우수한 농산물에 군산근대문화 스토리를 입힌 독특한 부스 운영으로 눈길을 끌었다. △군산지역 근대문화자원인 탁류 소설을 소개하고 퀴즈를 통해 교훈을 준 구고구마 체험 △근대건축물(근대역사박물관, 구 군산세관, 어청도동대, 근대미술관)과 헬로모던(Hello Modern) 떡살무늬를 이용한 절편 만들기 △희망떡메치기와 인절미 시식 △우수 군산 쌀을 활용한 가래떡 숯불구이 △일제강점기 월명동일원 양조공장의 유래와 군산의 역사를 소개한 막걸리 만들기와 율의장아찌 시식 등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근대문화자원을 활용한 모던음악회, 상황극과 가을정서에 맞는 아코디언&기타연주, 노래공연, 미술&저글링 공연, 수준 높은 현악3중주 공연이 어우러져 군산여행의 품격을 높이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시간여행 BI(Hello Modern)를 활용한 에코백 등 15종의 기념품 판매와 홍보관이 운영되었고, 석교방향제 만들기, 가족목걸이 만들기, 손거울 만들기 체험 등의 부스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군산 시간여행 BI(Hello Modern)의 대외적 홍보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근대복장과 추억의 학생복, 교련복 등의 체험부스를 운영해 참여자에게 무료 근대복장 체험과 인증샷 무료 인화서비스를 제공해 즐거움을 제공했다. 시는 여행주간(10.24~11.6) 군산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선유스카이선라인 이용료 20% 할인 △관광유람선 승선료 20% 할인 △라마다관광호텔, 리버힐 관광호텔 등 숙박료 할인 △원도심지역 게스트하우스(편발리지협동조합) 10% 할인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연계한 Buy 가맹점 1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알뜰 관광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우 군산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진행된 ‘군산 시간여행 속으로 떠나는 맛길! 멋길!’을 계기로 군산시를 방문하는 시간여행자들에게 재미있는 군산, 추억을 되살리는 군산 이미지 조성으로 다시 찾는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위한 법체계 구축

‘군산시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

군산시는 어린이행복도시 조성과 관련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의 초석이 되는 ‘군산시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영향평가란 아동과 관련된 법·정책·사업 등이 전체 아동 또는 특정집단의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과 제도적 평가체제를 갖추어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과 확산, 정책의 입안과 개발, 사업시행 초기단계부터 아동권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으로 어린이 권리증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산시는 올 연말 아동영향평가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아동관련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군산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최종연도인 2019년 목표가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인데, 군산시는 조기시행을 통해 어린이 행복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시단위 최초 시행에 따른 부담감과 어려운 점이 많지만 타 지자체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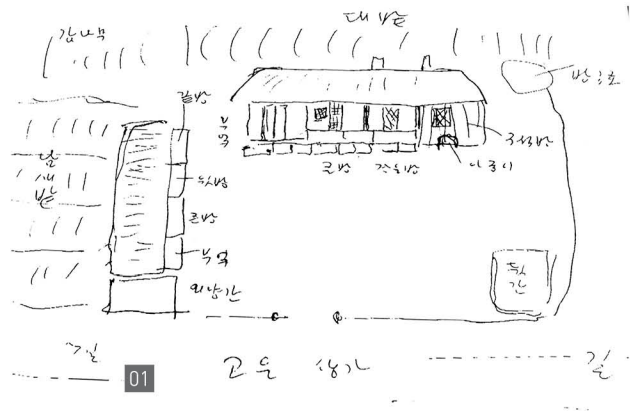
■ 가을 분위기 만끽할 수 있는 청암산으로 놀러오세요

군산시 옥산면 청암산에 호수와 함께 역사가 어우러져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역새숲 길목마다 포토존을 조성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포토존 조성은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의 일환인 원앙길 조성사업으로 역새가 만발한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중심으로 하트모양과 액자모양으로 포토존을 꾸며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역새숲길에 시와 명언을 전시하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만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사색하며 걷는 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암산은 1963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 지정해제 될 때까지 45년 동안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또한 2008년부터 역새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청암산구슬뽕 전국등산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 자료 제공_군산시청 공보과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T.063)450-4208 F.063)452-8159



조감도 속에서 찾은 70년 전 고은 시인 생가

기록으로 보는 고은 시인의 유년 시절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itel.net

위는 고은(84) 시인이 태어나서 자란 생가 조감도다. 당사자가 직접 그렸고, 처음 공개되는 조감도여서 흥미를 끈다. 지난 2000년 11월 21일 고은 시인이 이복용 군산역사문화원장에게 팩스로 보낸 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시기적으로 군산 개항(1899) 100주년 기념사업을 앞두고 고은 시인 문학관(기념관) 건립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감도에는 큰방, 작은방, 구석방, 부엌, 아궁이가 있는 네 칸짜리 초가(본채)와 끝방, 윗방, 큰방, 부엌, 외양간이 있는 사랑채가 자리하고 있다. 본채 뒤편은 대밭이고, 왼편엔 감나무, 우측에 방공호가 표기되어있다. 본채의 마루와 토방, 두 개의 굴뚝, 본채와 멀리 떨어진 뒷간, 사랑채 뒤편의 남새밭도 보이는 등 무척 세밀하고 입체적이다. 정성도 엿보인다.

“해방 위 우리 집의 운세는 좀 나아졌다. 소와 쟁기 그리고 네 바퀴가 달린 달구지를 사들였고, 2, 3년 동안의 머슴까지 두어야 할 정도로 논이 늘어났다.”- 고은의 자전적 소설 <나의山河 나의 삶> <2>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위 그림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광복 후 생가 모습이 라는 것이다. 소설에도 나오듯 일제강

점기에는 만주에서 들여온 찻묵도 먹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해서 머슴은 물론 소도, 외양간도, 달구지도 집안에 없었다. 그런데 조감도에 소의 안식처인 외양간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살림이 늘어난 광복 후 생가 모습을 그려졌지 않았나 싶다.

열흘 전 고은 시인 생가터에 다녀왔다. 안타깝게도 소설에 등장하는 본채와 사랑채, 외양간, 뒷간 등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 속에서도 노력동원(집단학살)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아버지와 함께 피신했던 대밭은 지금도 무성하였고, 100년생 감나무, 방공호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는 고은 시인이 태어나 승려가 되기까지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유년시절

고향을 노래하는 서정시인, 독재에 저항한 저항시인, 이념을 아우르는 민족시인 등으로 평가받는 고은(84) 시인. 그는 1933년 옥구군 미면 미룡리 용둔마을(군산시 미룡동)에서 태어났다. 당시 미룡리는 두메 마을이었다. 땅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고을(沃溝)의 쌀미(米)가 두 번 겹치는 미면(米面) 미룡리(米龍里)에서 나고 자랐으나 쌀밥 구경은 설날과 추석, 제삿날 혹은 잔칫날에만 가능했다.

고은의 집은 네 칸짜리 초가였다. 밤이면 석유 등잔도 없어 접시에 어유(魚油)나 식물 기름을 부어 그것에 심지를 적서 불을 밝혔다. 그의 어린 시절은 쑥에 대고 부싯돌을 치는 일과 성냥을 그어대는 일이 교차되던 시대였다. 개화기 이후 접시 등불이 없어지고 석유등잔이 등장했다가 일제말기 전쟁으로 석유가 귀해지자 접시불빛이 되살아났던 것.

고은은 어려서부터 자주 앓았다. 몸은 말랐으며 뼈는 제대로 굳어지지 않았고, 무엇하나 제대로 들어 올리는 힘도 없었다. 그래서 항상 혼자였다. 방죽(은파호수공원)이 옆에 있었음에도 헤엄을 배우지 못했다. 매년 수백, 수천 송이씩 피는 연밥만 따먹었다. 배움은 영향을 받아서인지 1950년 학도병 지원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체중 미달로 탈락한다.

코흘리개 고은은 아버지를 따라 군산 시내에 나갔다가 중앙로 거리에서 화려한 3층짜리 미나카이(三中井) 백화점과 수많은 2층 건물들을 보면서 도시를 동경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집 주변 할미산에 올라 이리(익산)행 기차가 내뿜는 하얀 연기와 금강 건너 장항제련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미지의 세계를 상상한다.



어린 고은에게 군산은 꿈이었고, 아버지는 희망이었다. 고은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군산에 나갔다가 어느 중국집에서 먹은 짜장면 맛이 한 달이 지난 뒤에도 혀바닥에 남아 있었다고 회고한다. 그에게 책을 처음 선물한 사람도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일본어로 된 소년잡지 <킹구(깁)>를 사줬던 것. 그 책에는 일제가 러일전쟁 영웅으로 떠받드는 노기(乃木) 대장 이야기는 있어도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없었다.

서당에서 소학, 논어까지 배우고, 아홉 살에 지금의 미룡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그해부터 조선어 시간이 없어지고 일본어만 배웠다. 그의 일본식 이름은 다카바야시 도라스케(高林虎助). 장래 희망을 묻는 일본인 교사에게 천황이 되고 싶다고 했다가 퇴학당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아버지의 간청으로 퇴학은 면했다. 대신 3개월이라는 노역을 감내해야 했다.

만주에서 들여온 콩깍묵으로 연명하던 식민지 시절 가난과 사회 혼란은 광복(1945) 후에도 지속됐다. 입학 전 한글을 깨우친 덕분에 4학년으로 월반한 뒤 새로 부임한 교장이 친일파였다

는 사실을 알고 교장을 몰아내기 위한 동맹 휴학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후일 입학시험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군산 사범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사춘기 시절~승려가 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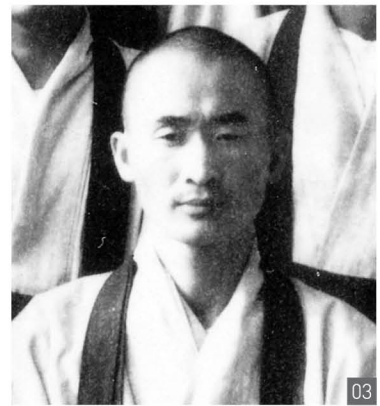
1947년 군산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다. 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동네잔치를 벌였다. 중학생이 된 고은은 영어와 수학은 신명을 내서 공부했다. 정원사 루터 바벡크의 얘기 따위는 거의 전문을 외웠다. 특히 지리시간을 제일 좋아했다. 함경북도 회령, 평안북도 신의주, 서해 남쪽 목포, 법성포 등 낯선 곳을 찾아 상상세계의 황홀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 <광야>를 읽고, 2학년 어느 날 하룻길에서 한아운(한센병 시인) 시집을 주워 집에 가져와 밤새도록 읽고 한아운 같은 시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1951년 1월, 고은은 아버지를 따라 선유도로 피난을 떠난다. 그가 집을 나서면서 챙긴 물품은 자드락 종이 한 다발과 옥편(玉篇), 지리부도, 이태준의 <문장독본>, 잉크, 철필 등이었다. 한국전쟁은 어린 고은의 꿈까지 바꿔놓았다. 화가가 되겠다는 꿈은 사라지고 시인이 되겠다는 꿈이 크게 익어갔던 것.

선유도에 한 달 남짓 머물면서 사귀는 사람들이 섬섬해 하며 전송해줬다. 그는 선유도 피난생활에서 새로운 눈을 뜬다. 고향에서 오랫동안 핏줄을 대어 오며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됐던 비극 이후에도 얼마든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의 학살에 대한 악몽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 와중에 그에게 문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외삼촌이 부역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고 가족 같았던 마을 사람들이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 서로 죽이고 죽는 참상을 목도한다. 폭격으로 파손된 비행장 복구 작업에 강제 동원되고 적신착란 증세가 나타나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방황이 시작된다.

청년으로 성장한 고은이 폐허가 된 항구도시의 방랑자로 떠돈 기간은 1년 남짓. 군산 미군비행장 양색시들 편지 대필, 대야 장터 엿장수, 군산 내항 미군항만사령부 운수와 검수원, 개복동 비둘기다방 주방장, 희소관 번사, 북중학교 영어·미술 교사 등을 거쳐 1952년 금강사(동국사) 승려가 된다.

01 고은 시인 생가 조감도
02 김제역에서(2010년 7월)
03 고은(일초)- 도우회 창립기념, 조계사(음력 1959년 8월 2일)

소금으로 이를 닦아도 되나요?

며칠 전, 60대 아저씨 한 분이 말씀하시네요. “나는 잇몸이 붓고 안 좋을 때는 소금으로 이를 닦아요. 소금으로 이를 열심히 닦고 나면 붓기도 내리고 개운해요.”

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의 수를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아저씨의 말씀이 맞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굵은 천일염으로 이를 닦으면 잇몸이 미세하게 찢어지는 상처가 생기는 문제점과, 치아 표면의 청소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은 소금으로 칫솔질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굳이 소금을 사용하고 싶다면, 죽염치약을 사용하시거나 곱게 빻아져 있는 죽염과 치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권하게 되지요.

무좀이 있는 분들은 다들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여름휴가로 바닷가에서 3박4일 신나게 놀고 왔더니 무좀이 많이 좋아졌던 것 말이지요. 우리 몸에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살고(치주염이 있거나, 무좀이 있거나) 있으려면, 그것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세균에 좋은 환경이 갑자기 엄청나게 찌꺼기로 바뀌게 되면, 세균은 죽거나 그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잇몸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박테리아이고, 무좀을 일으키는 것은 곰팡이라는 게 많이 다르긴 하지만, 온도가 변하거나, 삼투압이 변하거나, 신선한 공기가 많이 공급되거나 하는 변화는 세균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자연재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지리산 국립공원에 2박3일 등산을 가시게 되면, 불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삼푸나 비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방세제 및 치약도 마찬가지 이구요. 그렇다면 3일 동안 칫솔질을 하지 말아야 하나 궁금해질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하시던 대로 칫솔질 하세요. 단, 치약을 바르지 말고요. 치약을 바르고 칫솔질 하는 것과 치약을 바르지 않고 칫솔질 하는 것의 칫

솔질 효과는 겨우 15% 차이가 날 뿐입니다.

캠핑 갔는데 깜빡하고 칫솔만 챙겨오셨다면, 굳이 치약 사러 읍내에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치약 없이 칫솔질 하세요. 특히 주무시기 전에는 꼭 칫솔질 하세요.

지난달에는 칫솔에 치약을 듬뿍 바르지 마시고, 완두콩이나 강낭콩 정도만 바르시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직접 해보시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겠지만 일주일만 이렇게 칫솔질 하시면, 어느새 허전한 함은 저 멀리 사라지고, 당신은 지구자원을 절약하여 지구 보존에 동참하고 계시고, 본인 몸에는 화학 성분이 적게 흡수되어 청정한 신체가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다음 달에는 시린이를 덜 시리게 하는 치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 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의 미소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오전 9:20 - 오후 2:30
● 화요일 야간진료:
오후 8:00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 063_466_2875 fax. 063_465_2922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요즘 저에게 부부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매매거래를 세무서에 서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매대금의 원천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실제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매매거래로 인정하게 되는데 다음 사례에서 부담부증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력가인 김수송씨는 7년전 수송동 상업용지를 15억원에 매입하였는데 이 땅을 아들에게 증여하자니 증여세가 만만치 않을것 같아 전세 방법을 알아보던중 부담부증여 방법을 써보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란 해당 토지에 아버지 명의로 설정된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게되면, 채무액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채무액만큼 매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은 매매대금의 원천을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액만큼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채무액이 양도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겠죠!

김수송씨는 일단 이땅의 공시지가가 현재 20억정도 하나 은행에서 20억대출을 받은 다음 매매계약서를 20억으로 작성하고 매매대금은 전액 아들이 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명의이전해주고 자신은 양도차익5억에 대한 양도세 1억을 납부하였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20억짜리 땅을 아버지의 20억 대출을 인수하면서 취득하였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면 부담부증여로 약 6억원정도 되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고 좋아할수 있지만, 엄청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20억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대출신청하자 은행은 감정평가법인2군데에 이 땅에 대한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은 이땅의 시가를 평균 30억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알게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아들은 시가가 30억원인 땅을 20억원에 저가매수하였기 때문에 차액 10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금액이 대략 가산세포함해서 3억원정도 됩니다.

증여세만 납부하면 끝날까요? 이게 끝이라면 반전이라고 할수 없죠? 이제 세무서의 칼끝은 아버지에게 겨누어 집니다. 아버지는 30억짜리 땅을 아들에게 20억만 받고 팔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여 차액 10



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대략 가산세를 포함하고 비사업용토지 10% 추가과세까지 더해지면 6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중과세 아니냐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차액 10억원에 대해서 아들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적게 주고 취득했으니 증여세가, 아버지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일부러 덜 받았으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양타로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세무공무원들은 부담부증여된 채무 20억에 대해서 아들이 이자를 납부할만한 소득이 있는지, 이자를 아버지가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닌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것은 아닌지 계속 사후 관리하고 있으므로 한순간도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세금줄이기 정말 쉽지않네요!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자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절차와 관련된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B씨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천만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약 1천만원을 지급했는데요. 당시 B씨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에는 한도액 약 1억 9천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B씨는 보증금 잔금 지급일에 근저당 한도액을 약 5천만원을 줄여주기로 A씨와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약속 당일까지 근저당권을 줄이지 못했고 이를 확인한 A씨는 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 해제통보를 하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로 요구했는데요.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B씨는 이튿날 바로 근저당권 설정 한도액을 약 1억 4천만원으로 줄여 등기한 후 의무를 이행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 이에 불복한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계약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해당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한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는 특약사항으로 정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 채무의 이행 지체를 사유로 한 것이며 이러한 전제 요건인 이행의 최고가 이루어진 바 없어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는 이행의 최고로써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B씨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그 다음날 바로 특약상의 채무를 이행했으므로 A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B씨의 잘못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상고심은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판시한 것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률 사항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율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노공인중개사사무소
(IS 부동산연구소)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지크프리트의 어깨!

북유럽신화에 '지크프리트'신화가 있다. 어려운 성장기를 거치며 성장하고 있던 지크프리트는, 용사였던 지그문트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용맹을 보여왔던 터라, 보물을 얻고 싶었던 레긴의 양자가 되어 무술을 익히고 유명한 명검 '그람'을 받는다. 지크프리트가 예상대로 매우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하자 레긴은 그를 부추겨 파프니르를 퇴치할 것을 말한다. 파프니르는 용으로 변신해 보물을 지키고 있었는데 숨어 있다가 물을 마시러온 파프니르의 가슴을 찔러 죽이고 자신은 파프니르의 피를 온몸에 흡수 적시지만... 어깨에 작은 부분은 이 피로 적셔지지 못해 유일한 약점이 되고 만다. 이 파프니르를 퇴치하고 나서 지크프리트는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이후 레긴이 지크프리트를 배신하고 보물을 독차지하려고 하지만 용의 심장을 구워먹은 지크프리트는 새의 말과 함께 매우 현명해지고 배신하려던 레긴을 죽인다. 종략...

훗날 사랑을 이루지 못한 여인 브륀힐트의 배신으로 부르군트 최강의 흑기사 하겐에 의해, 잠들어 있던 지크프리트는 암살을 당하고, 죽은 지크프리트의 시신은 화장을 하게 되는데 시신이 불에 타버리자 복수를 이룬 브륀힐트는 사랑하는 지크프리트의 시신으로 몸을 던져버리면서 이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북유럽신화이자 영화 니켈롬의 반지도 알려진 이 이야기에서 어떤 강한 사람도 누구나 한가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늘 겸손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라는 삶의 지혜를 던져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라 일컬어지는 최순실씨와 그 사람과 얽힌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그들이 공식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떻게 어지럽혔는지?를 밝히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아마도 지크프리트의 어깨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어깨가 드러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들키지 않아야 할 가장 큰 약점,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처럼 너무 오랫동안 너무 긴 꼬리를 휘두르며 우리나라를 어지럽힌 사람들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의심 가는 사례들을 나열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이야기 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을 속이고 가장 보편적인 상식을 뒤집어 나에게 유리한 잣대로만 세상을 재려 했던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국민들이 가장 큰 상실과 실망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명분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들이 행복한 경제를 만들겠다

는 장밋빛 꿈만 안겨주고는 현실은 냉혹하리만큼 처절하게 외면당하는 삶을 강요받아야만 하는 국민들, 아니 우리들... 그래서 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더 서운하고, 더 슬픈 삶이 되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정치와 문화가 오랜 기간동안 안정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한 가지 나쁜 점은, 사회와 정치, 경제와 문화, 외교와 안보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발생하고 이 전문가들은 나름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 카르텔에 속한 이들이 권력을 만들어 세상을 이끌어가는 구조적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명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정피아(정치인과 마피아의 합성어) 등이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국민들을 리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자기만의, 자기 조직만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의 무리야 말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가장 큰 나라 성장의 약점이 아닐까 합니다. 나라의 약점 이것을 잘 극복해야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임금님귀가 당나귀 귀"인 것을 훗날 모두 알게 될 테니까요.

글 |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청년의 열정으로 소통하는 버스커즈인 군산 시즌 3

거리에서 자유롭게 공연하는 것을 뜻하는 버스킹의 공연자를 버스커(busker)라 부르며 버스커들은 악기, 작은 마이크, 휴대용 앰프 등을 들고 다니며 거리 곳곳에서 관객과 소통하며 음악을 즐긴다.

4월과 10월 "버스커즈 인 군산"은 한해에 두 번 행사가 열린다. 일년 중 가장 이런저런 행사로 가장 바쁜 계절 10월. (10월22일(토)~10월23일(일)) 군산시민예술촌 앞 조용한 예술의 거리가 22일 하루 사람들로 붐비는 하루가 되었다. 구도심에서 곳곳한 청년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버스커들의 축제로 활기가 넘쳤다.

"버스커즈 인 군산" 행사는 청년의 열정과 부대행사인 프리마켓으로 인적이 드문 골목도심 안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본선은 좀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대사박물관 앞 개항장터에서 진행되었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내주었고 부대행사로 진행된 아트마켓에도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었다.

22일 자유버스킹을 통해 26팀중 8팀이 본선에 진출하고 다음날 버스킹 콘테스

트로 전국 제일의 버스커즈를 뽑는 버스커즈인군산은 전국 버스커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었다.

서울, 인천, 대구, 광주등에서 활동하는 거리위의 버스커들과 그들의 음악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실력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거리 문화의 한축을 시민예술촌이 담당하고자 만든 행사다. 4월에는 24팀이 참여하였는데 10월 행사에는 2팀이 더 많은 26팀이 군산에 왔고, 군산이 버스커들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버스커즈 인 군산"은 버스커즈들이 자신들의 실력과 음악을 보여줄 수 있고 상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이다. 총상금 500만원중 이 1등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는데 노래연습을 하다 연인이 된 예쁜 커플 크룬(인천)이 차지했다. 상금 100만원이 주어지는 최우수상은 서울이 주 무대인 Knock6가, 15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Su WaLa Zilla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전국대회와 특별한 이력을 가진 팀들이 눈에 띠었다.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아빠가 기타를 치고 중학생 초등학교생 자



녀가 드럼과 건반을 연주하는 노글래시스 엔 플러스는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았다.

군산시민예술촌은 "버스커즈 인 군산" 같은 거리공연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향연으로 시민을 찾아간다. 11월7일~11월18일로 예정된 시네뮤직콘서트와 12월 송년음악회는 음악과 영화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획공연이 막을 올린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고품격 콘서트에 시민여러분을 초대한다.

군산시민예술촌
GUNSAN CITIZEN ART VILLAGE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 www.gsartzone.kr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토요일 문화공연 및 야간개관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 8월부터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토요일에 야간개관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토요일 운영시간을 늘려 관광객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근대역사박물관과 함께 분관인 근대미술관(구 18은행),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도 토요일 저녁 9시까지 운영되며, 저녁 6시 이후에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박물관은 토요일 야간개관과 함께 인근 벨트화지역을 특화된 야간 문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다양한 기획전과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한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매주 토요일, 박물관 기획전 및 문화공연을 야간까지 관람할 수 있다. 오는 11월에는 '아름다운 공유, 군산이야기'기증자전展과 '군산의 목화이야기'展이 각각 3층 기획전시실과 1층 열린갤러리에 열린다.

문화공연으로는 '마당놀이 수탈전', '7080 음악회', '사물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Gun Mountain Modern History Museum

주말
문화 공연

박물관, 조선은행, 18은행
토요일 야간(6시~9시) 무료관람

토요일 SAT		문의) 063-454-7870
박물관 광장	14:00-14:30 사물놀이 - 타악공화국 흠소리	
	15:00-16:00 버스킹공연 - 쓰리산	
박물관 앞 차 없는 거리	16:00/17:30 마당놀이 '수탈전' (2회)	
	18:30-20:00 7080 버스킹공연 - 통기타 사랑모임	
박물관 1층로비	19:00-20:00 7080 버스킹공연 - 산영라이브	

일요일 SUN

박물관 광장	14:00-15:00 7080 버스킹 공연 - 포크그룹 숲
박물관 2층 규장각실	14:00/15:00 인형극 '촉구의 거인, 오토바이 채금석' (2회)

"토요일 저녁 공연문화와 역사가 함께 한 시민 휴식 공간"

박물관으로 오세요!

사물놀이, 수탈전, 통기타, 인형극

아직! 많아요
무료

이 공연'등이 펼쳐져 관람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 야간운영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저녁시간까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야간운영을 통하여 원도심 거리에 불을 밝혀 군산시민에게도 저녁시간 좋은 문화 휴식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2011년 9월 개관하여 작년 한해 81만 여명이 방문하였고, 매년 30여회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하

여 살아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문화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작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 5대 박물관으로 선정되고, 박물관 인근의 7개 건물이 테마단지화되면서 전국적인 가족단위 체험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주말에는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관람객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선거권을 넘어 참정권으로의 여행, 그 시작

올해 국회의원들이 선거권을 가진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제안과 더불어 7월에는 각 지역에서 청소년 만나는 일을 하는 활동가들이 “18세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한겨레 신문에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이다.

18세 청소년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심지어 국방의 의무도 가진다. 병역법상 군 입대도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도 가능하며, 민법상 결혼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선거권만 19세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을 중심으로 참정권을 주장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 개인들이 모여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가 조직되었다. 서울,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각 지역에서 100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청소년자치연구소는 간사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11월 중 각 지역에서 가능한 날에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주장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한다. 설문조사, 서

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민해보는 과정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참정권과 관련하여 보통 제한된 지역이나 기관에서 그 목소리를 내거나, 각자 다른 시기에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비청소년인 성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 네트워크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만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려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시민이며 주인공이다. 군산지역에서는 군산청소년학생연합회, 군산YWCA, 이룸, 착한동네, 청소년자치연구소&달그락달그락 등의 청소년들이 연대하여 11월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참여자들도 찾고 있다. 블로그를 운영하여 참여 방법 및 진행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는 것을 권한다.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 블로그 주소 : <http://blog.daum.net/18vote/> 문의전화: 063-465-8871)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후원문의 : (063-465-8871, 후원직통전화 (070-7726-9377) (담당: 최미나 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youthautonomy/>



명운동은 전체적으로 진행 중이며, 각 지역별 활동은 캠페인, 국회포럼 등 다양하다. SNS를 통해 서로 공유하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생각들을 표현하게 된다. 12월 중에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책으로 정리하고, 국회로도 가져 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청소년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가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몫이

달그락 달그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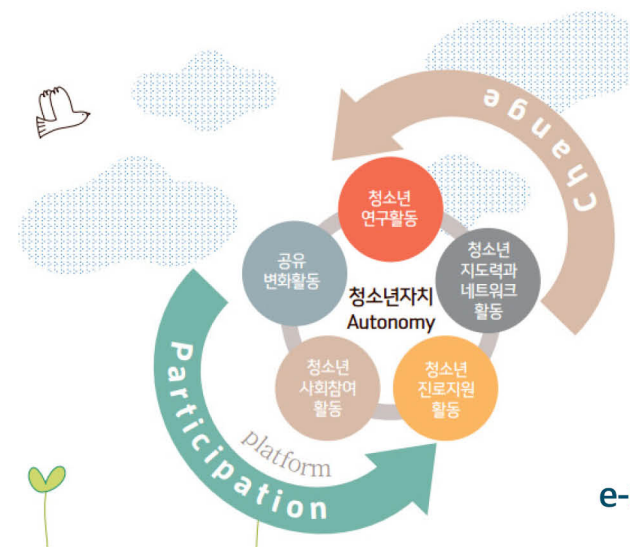
“작고 단단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앞의 달그락은 청소년들이 움직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뒤에 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소리입니다.



Youth Movement



저희 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후원계좌_ 국민은행 247901-04-096683
예금주_(사) 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add. 54023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월명동)
tel. 063) 465-8871 fax. 063) 466-8871
e-mail. jbyar@hanmail.net web. youthauto.net
cafe. <http://cafe.daum.net/ymcaleader>

2016 11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_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입니다. jin0101@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군산시 장애인가족과 함께하는 2016 박트리오 공감콘서트 군산예술의전당 전주장로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제 2회 PIAMOR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9회 동서커피 클래식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시대의 춤을 만나다 II'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18회 타악공화국 흙소리 기획공연 군산예술의전당 CTS전북방송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목요국악예술무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4회 소리로 통하는 소토콘서트 군산예술의전당 We are musicians 전북대 음악과 제 26회 성악 졸업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2회 군산 합창 페스티벌 군산예술의전당 번개맨과 신비의 섬 제7회 전주트럼펫과 이어 정기연주회 전북대 음악과 제 26회 성악 졸업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번개맨의 비밀5-번개맨과 신비의 섬 전주남성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 연주회 강현선 가야금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우석대 국악과 추계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번개맨과 함께하는 모여라 덩동당 군산예술의전당 제62회 추계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향 216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희망 음악회 군산예술의전당 가족뮤지컬 - 폰트랩 가의이야기 전라북도 어린이대음악제 20주년 수상자 기념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동남풍의 크리에이션 - 사계 군산예술의전당 가족뮤지컬 - 폰트랩 가의이야기 CTS전북방송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가족뮤지컬 - 백설공주와 샤넬왕자 군산예술의전당 드림청소년 오케스트라 & 온빛스트링오케스트라 제2회 합동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고은문화축제 - 창작 음악제 군산예술의전당	군산대학교 음악과 제39회 정기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팍페라 T&B 연주회 전북성악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현악단 정기공연 이야기가 있는 '작곡가 년' 2016 문학 순회 <작가와 나의 만남> - 사는 일 이 아득해질 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립합창단 제88회 정기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관현악단 정기공연 이야기가 있는 '작곡가 년' 박우근 비올라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10회 유망청소년 음악회 군산예술의전당 이은미 2016 - 2017 Live Tour 아마빌레 윈드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1회 프리모 챔버 앙상블 정기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이은미 2016 - 2017 Live Tour 하나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23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18회 베드로 남성 합창단 정기연주회 몰도바 국립 방송 교향악단 내한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50회 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목요국악예술무대 2016 문학 순회 <작가와 나의 만남> - 사는 일 이 아득해질 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영광학원 제48회 정기음악회 군산예술의전당 어린이뮤지컬 - 엄지공주 군산예술의전당 최성희 리사이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4회 정기연주회 - 군산의 사계 군산예술의전당 20주년 ILLUSIONIST 이은결 - 전주 아트스테이지 소리 : ep53 소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시 4대 종교 합창제 세광솔라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20주년 ILLUSIONIST 이은결 - 전주 카르포스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한울림 합창단 제 22회 정기연주회 제 29회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정기연주회(성악)과 정기연주회(성악)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뮤지컬 - 문준경 군산예술의전당 제 29회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정기 연주회 해설이 있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햇살이 그대랑'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

군산예술의전당

제28대 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 2016-10-27 ~ 2016-11-02 여성회관 수강생 모듬 전시회 2016-11-03 ~ 2016-11-09 제5회 청목회 정기회원전 2016-11-03 ~ 2016-11-08 nude사진 전북지회 전시회 2016-11-05 ~ 2016-11-10 당신이 와주시니, 용기가 납니다 2016-11-10 ~ 2016-11-11	포토스토리 회원전 2016-11-12 ~ 2016-11-16 제9회 한국서가협회 군산지부전 2016-11-12 ~ 2016-11-16 제35회 국립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작품전 2016-11-17 ~ 2016-11-25 Sameroom 2016-11-26 ~ 2016-12-04 제11회 군산전국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작품 전시 2016-11-26 ~ 2016-11-30
---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10.28(금)~11.03(목) (사)대한민국 남부현대미술협회 전북지회전
11.04(금)~11.10(목)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초청 전북 전주전
11.11(금)~11.17(목) 제22회 한중서법교류전 전주전
11.25(금)~12.04(일) 제30회 전라북도산업디자인대전 전국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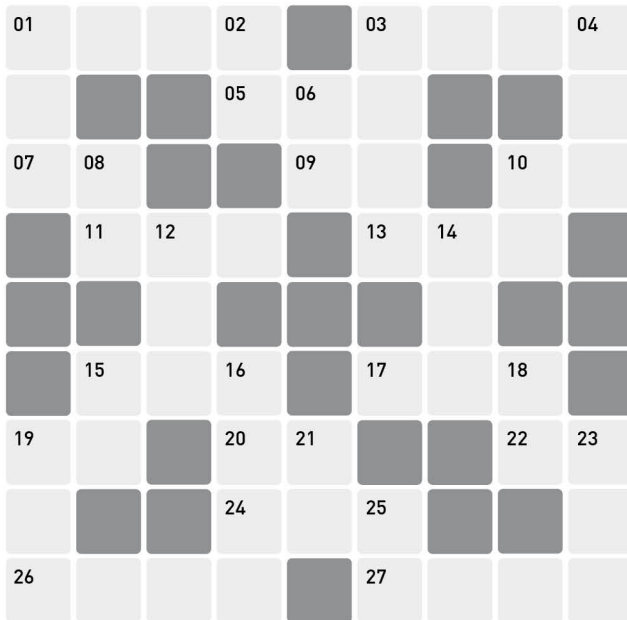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개정동 413 (063) 452-4075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신흥동 58-10 (063) 445-9331	삼성애육원 군산시 신창동 7 (063) 445-5947
일맥원 군산시 문화동 824-7 (063) 462-2385	신광모자원 군산시 나운동 1242-9 (063) 462-7749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나운동 845-9 (063) 461-8572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원면 증석리 58-8 (063) 466-6088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88-1 (063) 464-9944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 3길 37번지 (063) 466-7981

낱말 실력도 높고, 상품도 받고

즐거워 크로스워드 퍼즐 64



<제63호 퍼즐 정답>

가	금			해	군	
십	시	일	반	편	무	계
버		추	미	애		일
기	시	감		간	소	학
중		상	강	결	식	과
기	행	문		살	통	지
동		막	바	지		지
영	거	주	춤	주	전	부
지	옥			병	진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911-1856 E-mail. jin0101@hanmail.net

정답이었으나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 열쇠

- 01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씀.
- 03 몹시 방정맞은 행동.
- 05 눈 속에 핀 매화.
- 07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음악.
- 09 신령과 부처.
- 10 사물이나 공간, 지위 따위를 자기 몫으로 가짐.
- 11 개가하여 온 아내가 데리고 들어온 딸.
- 13 무덤 앞의 양쪽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
- 15 젖으로 양육되는 생후 약 1년간의 시기.
- 17 방정식에서 구하려고 하는 수. 예측할 수 없는 앞일.
- 19 금·은 따위로 만들어 몸치장으로 쓰는 가락지, 팔찌, 귀고리, 목걸이 따위의 장식물.
- 20 자웅.
- 22 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 익살.
- 24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
- 26 달걀로 돌을 친다는 뜻으로, 아주 약한 것으로 강한 것에 대항하려는 어리석음을 비유한 말.
- 27 남을 욕할 때 그의 혈통을 비아냥거리려 하는 말. ○○○○없는 놈.

▼ 세로 열쇠

- 01 어떤 일을 하기에 알맞은 나이가 된 시기.
- 02 이십사절기의 하나. 올해는 11월 22일.
- 03 자나 깨나 잊지 못할.
- 04 부추를 일컫는 경상, 충청 지방의 사투리.
- 06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
- 08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뜻.
- 10 수석에 다음 가는 자리. 또는 그 사람.
- 12 글을 쓸 때 생각이 미쳐 나지 아니하여 붓대만 놀리고 있는 짓.
- 14 한 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잡지.
- 15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 16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괴상하게 생긴 돌.
- 18 젓먹이에게 젖을 먹임.
- 19 조선 시대에 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쓰던 땃개비로 걸어 만든 갓.
- 21 물갈.
- 23 말이나 행동이 다부지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25 뿌린 씨가 잘 나지 않을 때 다시 덧뿌리는 씨.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LOUIS CASTEL
PARIS

루이까스텔 군산상설점

70%~50%

SALE

구매금액별 사은품증정

매장 방문고객 - 골프 tee

10만원 이상 구매고객 - 양말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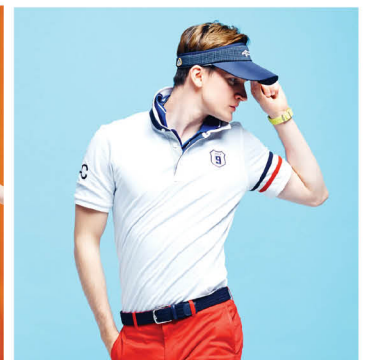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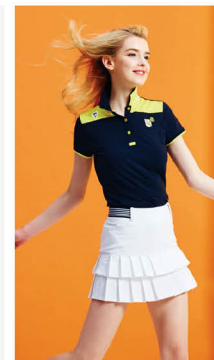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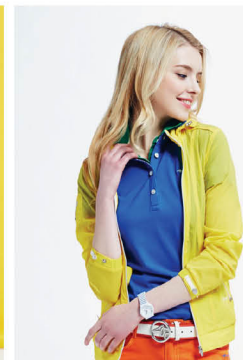
30만원 이상 구매고객 - 볼마커, 열쇠고리 택 1

50만원 이상 구매고객 - 우산, 수건세트, 골프장갑 택 1

■ 신세계, 롯데,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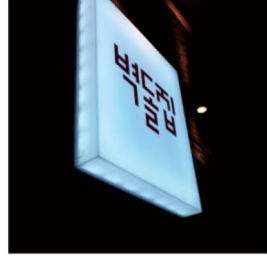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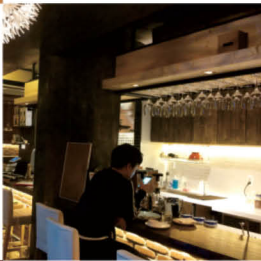


※단체주문 특별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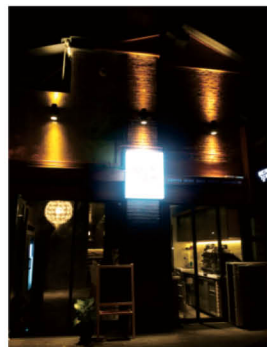


위치 : 중앙로 123 (개복교회 앞)

TEL. 063) 443-0877



COFFEE WINE BEER PASTA SANDWICH



군산시 둔율1길 2 (안동집 옆) T. 070-4152-0466



시민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새로운 대안

박물관 로컬푸드 직매장

(우천시 휴장)

토요 직거래 장터 개장 2016.5.5 ~ 2016.10.30



철저한 품질검사로 신선도와 안전성을 갖춘 400여 품목 지역 농수산물 판매
(각종 채소류, 버섯류, 나물류, 장류, 계란, 생선, 우유, 정육 및 제빵, 간식거리 등)

추석 명절 직거래장터 운영 | 시간여행축제 직거래장터 운영
(9.14~16) (9.30~10.2)

하절기 08:00~20:00
동절기 08:30~19:00



군산시 해망로 224번지(근대역사박물관 옆)

063)443-1115~6

삼영종합 SamYeong Total 중장비학원 Heavy Equipment Academy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지게차 운전기능사
굴삭기 운전기능사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타워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줄걸이 및 신호(Rigger)

063-453-4817~8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항쟁로 66 삼영종합중장비학원